OPEN 출처표시 상업적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MAGAZINE

KOICA

2024 VOL.5



커버스토리
한국은 왜 아프리카에 주목하는가?

기획 특집
디지털 기술이 변화시킬 아프리카의 미래

전문가 기고
슬픔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그곳
- 김가람 KBS1 <걸어서 세계 속으로> PD

인터뷰
"한국은 개발협력분야 최고의 파트너"
- 나탈리아 카넴 UNFPA 사무총장 인터뷰

KOICA



코이카는 더 나은 내일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과 상생의 개발협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코이카는 선진국형 ODA 사업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무상 개발협력 대표기관입니다.

KOICA

CONTENTS

서문

05 **미래지향적 동반자 아프리카와 포용과 상생의 개발협력 이어가야**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커버스토리

06 **한국은 왜 아프리카에 주목하는가?**
지구촌 새로운 성장 동력

기획 특집

08 **코이카의 對아프리카 지원 현황**
ODA 인포그래픽

행사 리뷰

10 **'동반성장·지속가능성·연대'의 토대 위 '청년·디지털·혁신'을 이야기하다**
한-아프리카 미래 파트너십 콘퍼런스

기획 특집

14 **"한국 보건의료 벤치마킹으로 누구나 건강할 기회 제공"**
버나드 오코에보에 가나 보건부 장관 인터뷰

16 **"교육 현장에 ICT 적용했더니 교육 수준 한 단계 도약"**
클로데트 이레레 르완다 교육부 국무장관 인터뷰

18 **디지털 기술이 변화시킬 아프리카의 미래**
코이카의 對아프리카 디지털 ODA 사업



10



24



30

21 **더 건강한 엄마, 더 건강한 아이를 위한 노력**
우간다 WHO 동부 부소가 지역 모자청소년보건 시스템 강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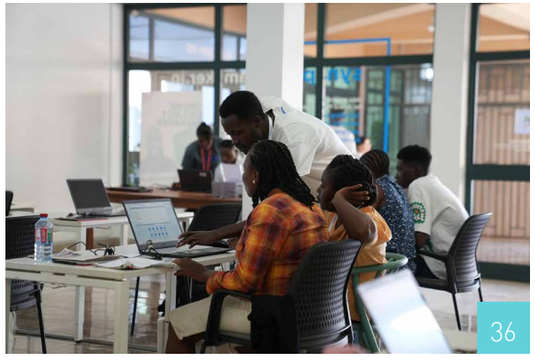
24 **'교육이 ICT를 만날 때' 르완다 교실에서 생긴 일**
르완다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역량 강화 사업 外

26 **"ICT는 아프리카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
르완다 소프트웨어 특성화고(RCA) 졸업생 인터뷰

28 **알제리 통관 시스템을 싹 바꾼 '싱글윈도우'**
알제리 전자무역을 위한 싱글윈도우 구축 사업

30 **나이지리아 교육 '스마트'를 입다**
나이지리아 공립 초·중학교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역량 강화 사업

33 **뒤집어 보는 아프리카**
허성용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대표







36 청년이 변하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KOICA in Africa

38 슬픔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그곳, 남아프리카공화국
김가람 KBS1 <걸어서 세계 속으로> PD

41 “투명성·효율성 높은 K-전자조달, 아프리카 환경에 최적”
소니아 벤 살렘 튀니지 공공조달상위위원회 국장 인터뷰

44 삶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가뭄에 핀 그녀들의 웃음소리
케냐 중부 건조지역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47 아프리카 ‘좀 아는’ 코이카 직원들이 말하는 ‘진짜 아프리카’
전기장판부터 아기 울음소리, 하쿠나 마타타까지

50 ‘뜨는 기술’ 배워 꿈 찾은 탄자니아 청년들
탄자니아 청년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사업

54 “스타트업에 도전하세요, 지원해드립니다”
세네갈 잠냐죠 고등기술전문대학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56 청년 기업이 선택한 아프리카
이에녹 데이터메이커 대표 · 신민용 바딧 대표

59 “잊지 않고 찾아와 준 한국이 참 고맙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촌을 가다

62 아프리카 10년차가 말하는 ODA 전문가의 역할
박준우 UNDP 콩고민주공화국 국가사무소 현장사무소장 인터뷰

인터뷰
66 “한국은 개발협력 분야의 최고 파트너”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 인터뷰

사업 리뷰
70 시민사회와 함께 더 큰 세상을 그립니다
2024년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사업 성과공유회

에세이
74 역사의 흔적을 되살리는 자부심
송영준 코이카 캄보디아사무소 부소장

기관 소식
77 KOICA NEWS 모아보기
한눈에 보는 코이카 최신 이슈





미래지향적 동반자 아프리카와 포용과 상생의 개발협력 이어가야

지난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다자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개최한 국제 행사입니다. 우리 정부가 초청한 아프리카 48개국이 모두 참석한 것은 물론이고 이 중 30여 개국의 정상급이 직접 우리나라를 방문한 가운데, 한국과 아프리카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젊고 성장 잠재력이 큰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14억 인구 중 60%가 25세 이하이고 백금, 코발트, 망간 같은 세계 광물 자원의 30%가 아프리카 곳곳에 매장돼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국제적 위상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93개의 유엔 회원국 중 54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이며,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해 아프리카는 GDP(국내총생산) 3조 4,000억 달러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선진국들이 앞다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핵심인 아프리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와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실현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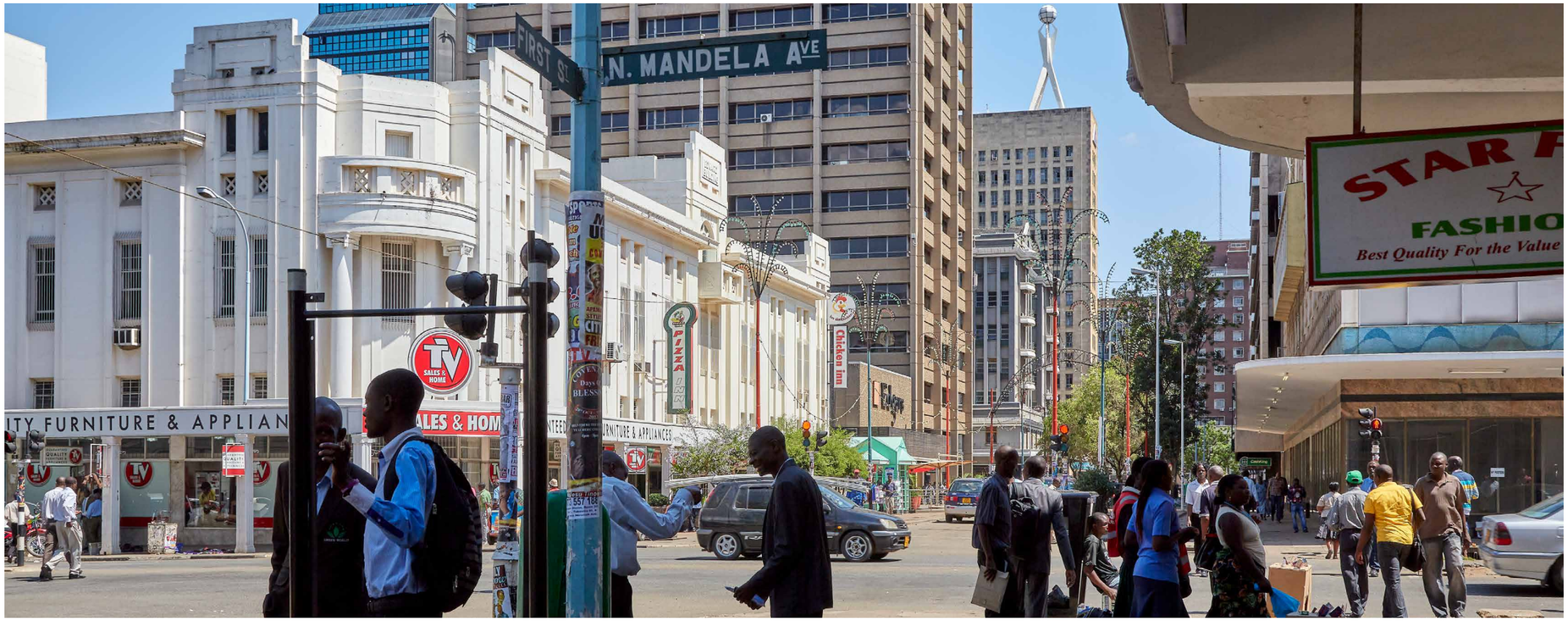
이런 배경하에 이번 <MAGAZINE KOICA> VOL.5의 주제를 '아프리카'로 잡았습니다. 아프리카와 한층 강화된 동반자 관계를 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코이카가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펼쳤던 지원 사업들을 되짚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앞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인 디지털 교육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코이카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르완다에서 실시한 '교사 및 예비교사 ICT 교육 역량 강화 사업', 탄자니아의 '청년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사업(GIZ)', 세네갈에서 전개한 '잠냐죠 고등기술전문대학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나이지리아의 '초중학교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역량 강화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현재는 전과 180도 다른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케냐 여성들의 이야기, 에티오피아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촌(코리안 빌리지)에서 만난 참전용사와 후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코이카의 대아프리카 지원 사업 성과들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프리카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대아프리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100억 달러(약 14조 원) 수준으로 높이고,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수출금융 규모도 지난해 43억 달러에서 2030년에 140억 달러까지 상향할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개발협력 기관으로서 코이카는 우리 정부와 기조를 같이하며 아프리카와 공동 번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젊은층이 많은 아프리카의 역동적인 인구 구조에 부합하는 청소년 대상의 보편적 디지털 교육, 지역사회 중심의 농촌 개발, 포괄적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아프리카의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장원삼 드림



지구촌 새로운 성장 동력

한국은 왜 아프리카에 주목하는가?

지난 6월 4일과 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와 서울에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한국이 아프리카와 최초로 개최하는 다자간 정상회의였다. 최근 미·중·일 등도 아프리카와 정상회담을 잇달아 열며 대규모 경제 원조를 약속하고 있다. 세계는 왜, 또 한국은 왜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있을까?

아프리카, 젊은 노동력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

아프리카는 아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2020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인 3%를 넘어섰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상위 20개 국가 중 아프리카 국가가 11개국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아프리카가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에는 풍부한 자원뿐만 아니라 '젊은 노동력'이라는 큰 무기가 있다. 전 세계 인구는 감소하지만 아프리카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구는 2022년 기준 약 14억 1,000명에서 2050년에는 약 24억 7,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다. 특히 청년인구가 크게 늘어 10년 안에 아프리카의 생산인구(15~65세)는 약 10억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로 뭉치는 아프리카

성장에 눈뜬 아프리카는 국경을 넘은 거대 공동체로 뭉치고 있다. 2015년 아프리카연합(AU)은 아프리카 대륙이 지향하는 공동 발전 목표를 담은 '어젠다 2063(Agenda 2063)'을 발표했다. 2021년 1월에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아프리카 54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경제 공동체가 탄생했다.

AfCFTA는 참여 국가 간 관세 인하와 비관세 조치를 시작으로, 운송·관세 및 국경 교역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AfCFTA 시행으로 아프리카 국가·지역 간 투자가 159% 증가하고 아프리카의 소득이 증대되며 빈곤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아프리카 ODA 규모 매년 확대

이처럼 아프리카가 '지구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세계의 눈이 아프리카로 쏠리고 있다. 아프리카와의 경제 협력을 위한 민간의 참여가 가속화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구축하기 위한 개발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아프리카 6개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2011년까지 유엔 회원국 기준 아프리카 54개국 전체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며 현재까지 활발하게 ODA(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코이카의 ODA 지원액은 해당 분야 1위 대륙인 아시아를 바짝 뒤쫓고 있다. 주목할 점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협력국에 병원, 학교 등을 건설하고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을 하는 국별협력사업단위 예산에서는 올해 아프리카(3,066억 원, 23.6%)가 아시아·태평양(2,756억 원, 21.2%) 지역 예산을 최초로 추월했다.

코이카는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 개발 환경을 분석하고 발전목표를 반영한 전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 협력 전략 및 국별 지원 계획에 기반을 두어 사업을 발굴하고, 아프리카 전역 및 광역별(북·중서·동남)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한국만의 '진정한 동반자' 역할 찾아야

한국과 아프리카는 각각 일본과 서구열강에 지배당했던 제국주의 식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6·25전쟁 당시에는 에티오피아와 남아공 등 아프리카 국가가 남한을 위해 싸우거나 물자를 지원했다. 이제 한국은 국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역사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아프리카에 다가서야 한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경험으로 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 강점이 있다. 이는 현재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다.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도 "하드 인프라보다 한국의 발전 경험, 특히 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협력을 원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진상 한국항공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해 열린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심포지엄'에서 "아프리카와 한국의 파트너십은 한국의 강점인 ICT 분야 등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어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산업화를 촉진해 한국과 아프리카에 윈-윈(win-win)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발행하는 《아시아 브리프》 저널에서 "단순히 원조 규모로 경쟁하지 않고 한국이 보유한 발전 경험의 지식과 가치로 아프리카 경제 발전과 정치 개혁에 기여할 이슈 영역을 찾아야 한다"면서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선진국)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개발도상국)를 연결하는 '커넥터(Connector)'로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과 아프리카, 윈-윈하는 미래

이번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양측 간의 개발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우호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한국은 '새로운 원동력' 아프리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아프리카는 미래를 향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기다리고 있다. 진정한 파트너로서 윈-윈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주인공이 될 앞날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ODA 인포그래픽

코이카의 對아프리카 지원 현황

'새로운 성장 동력'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륙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젊은 노동력'이 가파른 성장을 이끌고 있다. 아프리카 14억 인구 중 30세 이하가 70%, 중위연령은 19.7세로, 1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이카의 아프리카 ODA(공적개발원조) 지원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돌파해 1위인 아시아와 비등해졌다. 주목할 점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의 글로벌 외교 파트너 아프리카



유엔(UN) 회원국 수(193개)의
1/4 이상(54개국) 차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10석 중 **3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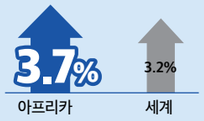
아프리카연합(AU), 남아공
G20 회원국

● 지구촌 새로운 성장 동력 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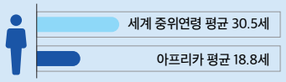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AfCFTA) 이행

2022년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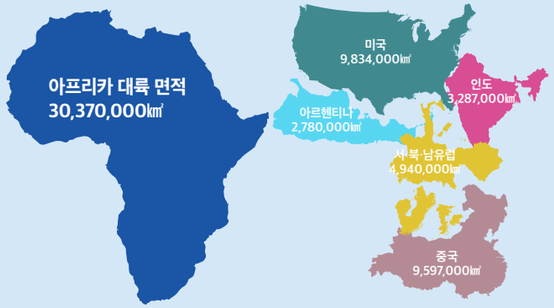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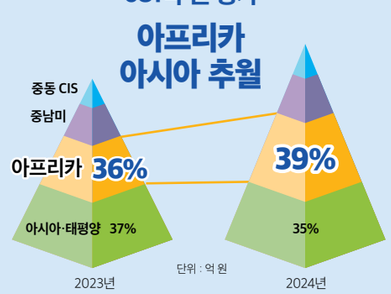


인구 14.2억 명
중위연령 18.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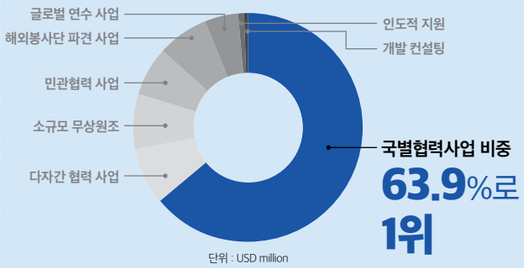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 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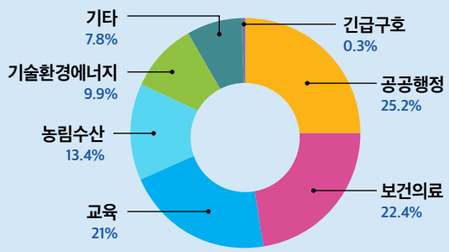
● 2024년 아프리카 국별협력사업* 예산 아시아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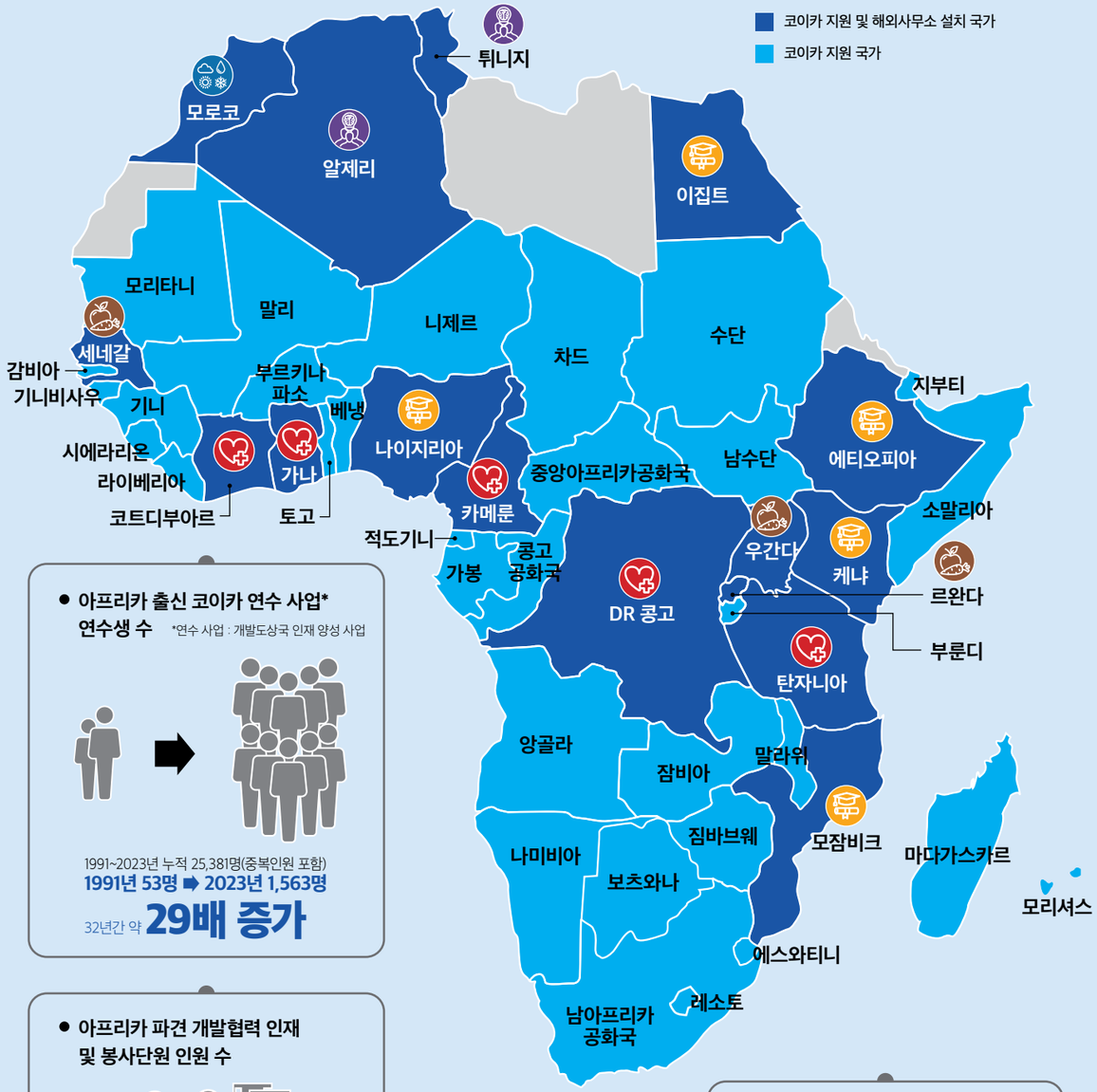
● 코이카의 유형별 아프리카 ODA 사업



● 코이카의 분야별 아프리카 ODA 사업



*국별협력사업 :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 향상 등 특정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적 협력수단과 인적 협력수단을 패키지화하여 다년간(약 2~5년) 지원하는 사업. 프로젝트형과 개발컨설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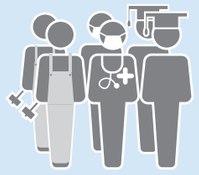


● 아프리카 출신 코이카 연수 사업*

연수생 수 *연수 사업 : 개발도상국 인재 양성 사업

1991~2023년 누적 25,381명(중복인원 포함)
1991년 53명 ➡ 2023년 1,563명
32년간 약 **29배 증가**

● 아프리카 파견 개발협력 인재 및 봉사단원 인원 수



1991~2023년 누적 8,101명 이상

● 코이카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 주요 프로그램 분야

- 보건
- 교육
- 농촌개발
- 거버넌스
- 기후행동

자료 : 코이카 오픈데이터 포털, 《UN 2022년 세계인구 전망보고서》, 한·아프리카재단



1



2

한-아프리카 미래 파트너십 콘퍼런스

‘동반성장·지속가능성·연대’의 토대 위 ‘청년·디지털·혁신’을 이야기하다

지난 6월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아프리카 미래 파트너십: 개발협력을 통한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주제로 콘퍼런스가 열렸다. 외교부 후원으로 코이카가 주최한 이번 콘퍼런스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024 Korea-Africa Summit)’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등 50여 명이, 아프리카 측에서는 정상회의 참가 대표단 및 아프리카 외교관 특별연수생, 코이카 석박사 연수생 등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39개국 200여 명이 참석해 아프리카 지역발전과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도 전 세계 1,140명이 시청하며 이날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다.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새 시대 여는 한국과 아프리카

특별 영상과 함께 시작된 콘퍼런스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기조연설과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의 환영사,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의 개회사, 라지 타주딘(Raji Tajudeen)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부사무총장 대행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기조연설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세대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독특한 경험은 ODA(공적개발원조)의 지속적인 확대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아프리카는 기후변화, 식량불안, 보건위기,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시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혁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가 무한한 성장과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아프리카와 상호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협력 대상국의 국가 발전 정책과 현지 개발 수요에 알맞은 ODA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아프리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 구상(Tech4Africa)’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미래세대의 과학·ICT 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인프라 확충, 거버넌스 구축 등 아프리카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청년을 위한 보편적 디지털 교육’, ‘지역사회 주도형 농촌 개발’, ‘포괄적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시그니처 사업을 통한 한-아프리카 협력 확대’ 등 선진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아프리카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라지 타주딘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부사무총장 대행은 “한국 및 코이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질병통제를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라며 “혁신과 기술 발전 분야, 인재 개발에서도 파트너십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세션: 한국의 對아프리카 개발협력 전략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전략(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for Africa)’이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은 ‘아프리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 구상(Tech4Africa)’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면서, 아프리카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 ▲보편적 디지털 교육(모든 학생들에게 디지털 도구 학습 기회 제공) ▲직업훈련(지역 일자리 수요와 연계한 대학과 직업기술교육훈련원의 디지털 기술 교육) ▲일자리 기회 제공(숙련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청년 현지 및 해외 취업)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이진상 한국항공대 석좌교수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방향성을 잘 알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1991년부터 34년 동안 이어온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노력의 바탕 위에서 미래 방향성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알아



3



4



5



6

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했다. 첫 토론자인 박종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아프리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 구상(Tech4Africa)'이라는 이니셔티브가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면서 청년인구 비중이 큰 아프리카의 '모바일 경제 확장'과 '시장의 역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 참여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다음 토론자인 조이 사쿠라이(Joy M. Sakurai) 주한 미국대사관 공관 차석은 2022년 12월 미국에서 발표한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전략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경제 인프라', '인적자원 제고', '디지털 권한 부여 환경 구축' 등의 하부 목표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현지의 젊은 리더를 양성하는 미국의 디지털 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아프리카와의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규호 심의관은 "디지털 경제는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대기업만이 아니라 젊은 기업가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세션: 코이카-아프리카 협력의 성과와 미래 방향

두 번째 세션은 '코이카-아프리카 협력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코이카의 아프리카 사업을 다룬 특별 영상을 시청한 후 첫 발표가 시작되었다. 이번 발표는 임진호 김천대학교 교수가 클로데트 이레레(Claudette Irere) 르완다 교육부 국무장관을 대신해 단상에 올랐다. 임진호 교수는 "르완다는 비전 2050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사회 변화', '경제 변화', '정부 변화'라는 세 가지 기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2017년부터 코이카가 추진해 온 '르완다 교사 및 예비교사 ICT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의 성공 요인을 소개했다. 특히 "계획부터 실행, 모니터링, 평가 및 평가 후 결과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르완다 정부와 코이카 전문가들의 파트너십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 코이카 ESG 이니셔티브'라는 주제 아래 정인희 삼성전자 상무가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갔다. 정인희 상무는 삼성전자의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 노력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코이카의 ESG 이니셔티브를 통해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활용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MIT 산하에 설치된 MIT D-Lab과 함께 진행한 우간다, 탄자니아, 남수단 지역과의 원격 교육을 언급했다.

세 번째 발표는 버나드 오코에보에(Bernard Oke-Boye) 가나 보건부 장관이 '미래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축'이라는 주제로 가나에서 진행된 코이카의 CHPS(Community-based Health Planning and Services) 기반의 지역보건체계 강화사업을 소개했다. 버나드 오코에보에 가나 보건부 장관은 가나 정부가 코이카의 CHPS를 통해 지역사회부터 종합병원에 이르는 포괄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한 과정을 소개하면서 "역량 있는 보건 인력 양성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표는 황재상 코이카 사업전략실장이 맡아 '코이카의 대아프리카 시그니처 사업'에 관해 이야기했다. 황재상 실장은 시그니처 사업의 사례로 ▲미래를 위한 디지털 교육 사업(교사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교육 커리큘럼 강화, 포용적인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농촌 개발 사업(농촌 정책 개발, 공무원 역량 강화, 지역사회 자립 모델 개발) ▲안전을 위한 보건 사업(기초 의료 인력 및 인프라 시스템 강화, 감염병 대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마무리: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과 교류 확대 기대

모든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질문과 소감도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전경식 코이카 아프리카실장은 "코이카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프리카와 협력하고 있다"며 "농업, 보건, 교육 등 전통적인 부문에 더해 기업 협업, 디지털 분야 등 아프리카 현지 개발 수요에 맞는 지식과 노하우를 파트너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세션이 종료된 이후 이윤영 코이카 사업전략·지역사업본부 이사는 폐회사를 통해 "아프리카의 젊은 인구는 아프리카만의 미래가 아니라 글로벌 커뮤니티의 미래"라고 강조하면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Tech4Africa와 코이카의 대표 프로그램은 한국의 연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한-아프리카 미래 파트너십 콘퍼런스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슬로건이기도 한 '동반성장·지속가능성·연대'를 확인하는 자리인 동시에,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과 방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코이카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과 교류를 넓혀갈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바딧, 에누마* 등 코이카와 협력해 혁신적 기술로 아프리카 지원에 나선 국내 기업의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7



8



9



10



11

* **바딧:** 케냐에서 파머스핸즈(AI에 기반한 미세한 움직임 분석기술)를 활용해 송아지 질병 조기 발견 및 정밀 사육 솔루션 보급 사업 추진
에누마: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에서 아동 대상 혁신적 문해·수리 교육 앱 '킷킷스쿨' 개발 및 보급

1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아미라 아가립 주한 수단대사, 버나드 오코에보에 가나 보건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 '개발협력을 통한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한-아프리카 미래 파트너십 콘퍼런스' 현장
3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4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5 라지 타주딘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부사무총장 대행
6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
7 임진호 김천대학교 교수
8 정인희 삼성전자 상무
9 콘퍼런스에 집중하고 있는 행사 참석자들
10 콘퍼런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뤄진 토론 시간
11 이윤영 코이카 사업전략·지역사업본부 이사

버나드 오코에보에 가나 보건부 장관 인터뷰

“한국 보건의료 벤치마킹으로 누구나 건강할 기회 제공”



“한국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일차 보건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예방접종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민간병원에서도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나에도 이 모델을 도입해 보편적 의료 체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버나드 오코에보에(Bernard Okoe-Boye) 가나 보건부 장관의 의지는 분명하다.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선진 보건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현지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코이카는 가나의 지역보건체계 CHPS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보건체계를 강화하고 모성, 신생아, 아동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했다. 총 956만 달러가 투입된 보건체계 강화 사업으로 아동 사망률은 절반이나 줄었고, 모성 사망률도 10% 감소했다. 지난 6월 4~5일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오코에보에 장관에게 가나의 보건 전략을 들었다.

Q. 한국 방문은 처음이신가요?

지난번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가나를 지원하는 한국의 ODA 기관 덕분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견문을 넓히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의 일차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코이카와 함께 진행한 ‘가나 CHPS+ 사업’을 아프리카 대표단 앞에서 소개할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국에 머물며 서울대병원에서 한국 의료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Q.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는 가나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과 같은 단일 선진국이 아프리카 54개국 정상을 모두 초청해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선진국인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가나에 전파하고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가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한국 정부는 코이카를 비롯한 여러 기관을 통해 가나의 보건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ODA는 가나의 일차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한국의 지원으로 가나 북부의 모성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개선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코이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50만 달러 규모의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강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감염병 진단 실험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총 106명의 중급 현장 역학조사관을 양성했습니다. 사업을 통해 양성된 역학조사관은 현지 코로나19 확진자의 34%를 추적하면서 팬데믹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Q. 한국이 향후 보건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집중해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요?

가나는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 오브 프랙티스(Network of Practice, NoP)’를 주요 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NoP 전략에 기반한 지역 보건소 활성화와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Q. 가나에 벤치마킹하고 싶은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있나요?

보건소 중심의 일차 보건의료 시스템과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보편적 의료 체계가 가장 눈에 띕니다. 또 한국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도 잘 구축돼 있습니다. 가나에도 이 모델을 도입해 보편적 의료 보장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밖에 가나에도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과 같은 보건의료 인력 양성 전문기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가나의 의료 시스템은 주변 국가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가나는 지역사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 보건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성인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고, 민간 의료 부문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도 64.5세로 주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Q. 향후 한국과 가나 간 협력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한 국가의 위협과 위기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위기를 통해 이를 경험했습니다. 한국과 가나가 글로벌 보건안보 의제(GHSA)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처럼, 감염병 대응과 일차 의료 시스템 개선은 양국 모두의 보건안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 분야뿐 아니라 교육과 기술 분야의 협력도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나라의 혁신적인 기술 발전은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가나와 한국이 협력해 나간다면 한국에도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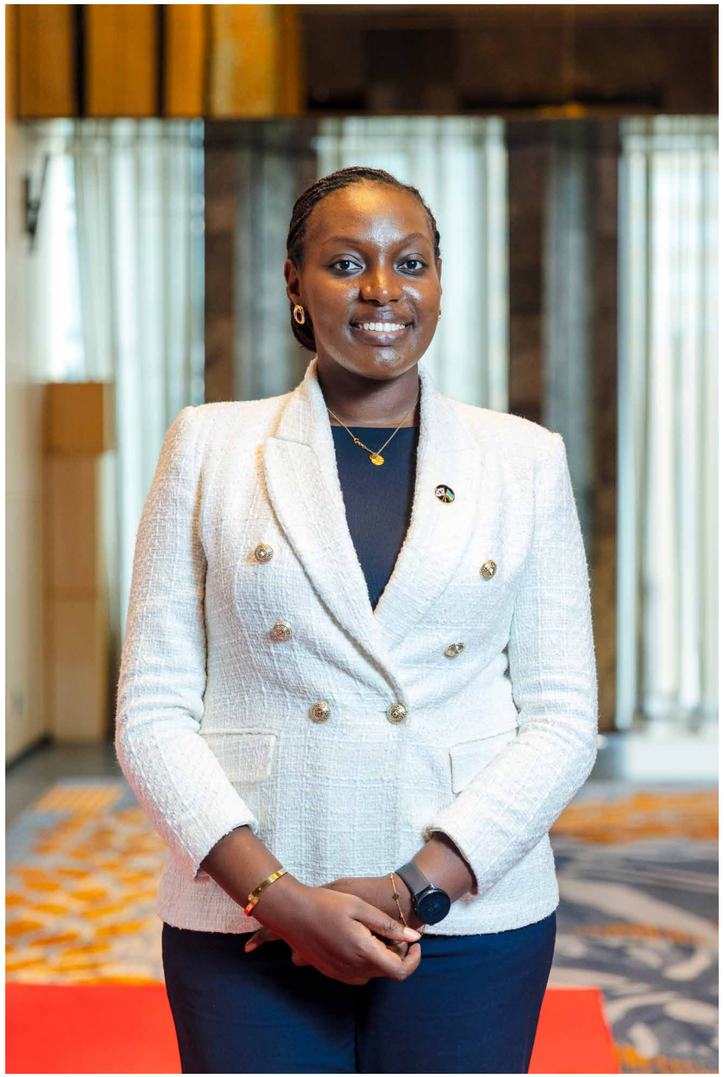
가나를 지원하는 한국의 ODA 기관 덕분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견문을 넓히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Q. 한국 정부나 코이카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와 코이카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에서도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클로데트 이레레 르완다 교육부 국무장관 인터뷰

“교육 현장에 ICT 적용했더니 교육 수준 한 단계 도약”



“이번 정상회의는 르완다의 여러 기관과 한국의 기관,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전반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르완다는 한국의 대학들과 교류하고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클로데트 이레레(Claudette Irere) 르완다 교육부 국무장관은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에 르완다 국가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젊은 인구가 많은 르완다에서 교육 분야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코이카는 르완다에서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역량 강화 사업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교육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처음 방문한 이레레 국무장관에게 르완다와 한국의 교육 부문 협력에 대해 물었다.

Q. 한국의 첫인상은 어떤가요?

한국의 현대적인 시설과 효율성 높은 사회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친절한 사회 분위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Q.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마친 소감은 어떤가요?

이번 정상회의는 양국 관계를 확대하고 국제 무대의 지도자와 전문가들과 아프리카의 발전, 그리고 미래 세대의 역량 강화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대표단과 토론과 네트워킹에 참여하면서 국가 간 협력이나 노력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어요. 또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하거나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Q. 교육부 국무장관으로서 현재 르완다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르완다 교육 부문의 주요 목표는 무엇보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학률 향상을 위한 초등 전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중퇴율 감소를 위해 노력합니다. 학교 인프라 개선·확장과 교육 자원 확보에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ICT의 통합을 촉진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을 장려합니다. 직업기술교육훈련(TVET)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장애인을 위한 포용성과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학생만큼이나 훈련된 교사의 수를 늘려 교사 복지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평가와 학교 점검을 통해 모든 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Q. 르완다 교육 시스템에서 코이카의 ICT 지원 사업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코이카는 르완다에서 소프트웨어 특성화고를 만들어 ICT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코딩 아카데미, 교육 종사자 훈련 등 다양한 ICT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르완다의 국가 개발 목표, 교육 전략과 수요에 따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교육 부문의 ICT 수준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코이카의 프로젝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코이카의 프로젝트는 인프라 조성부터 교사 연수,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상적인 성과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르완다 교사 및 예비교사 ICT 교육 역량 강화 사업(CADIE)’의 경우, 교육자들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자의 역량을 높여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이니셔티브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키워내는 르완다 코딩 아카데미 프로젝트는 지식 기반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 코이카 사업을 통한 변화를 실감하는지 궁금합니다.

코이카 프로젝트로 르완다의 학교 교육 인프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 30개 지역에 우수학교센터를 설립하고, IT 인프라와 함께 교육에 필요한 도구들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르완다 코딩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IT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는 현직 교사를 위한 교육과 전문성 개발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교사들이 최신 교육 방법론, ICT 통합 및 과목별 콘텐츠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교육의 질이 높아졌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코이카는 르완다에서 소프트웨어 특성화고를 만들어 ICT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코딩 아카데미, 교육 종사자 훈련 등 다양한 ICT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르완다 교육 시스템이 주변 국가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르완다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외에도 네 가지 주요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르완다의 문화적 가치인 애국심, 단결, 성실, 근면에 기반을 둔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와 미래의 노동 시장을 위한 올바른 기술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교사 우선 원칙입니다. 양질의 교육이 성공하기 위한 타협할 수 없는 전제 조건입니다.

Q. 교육 분야에서 코이카와 같은 기관과 어떻게 협력할 계획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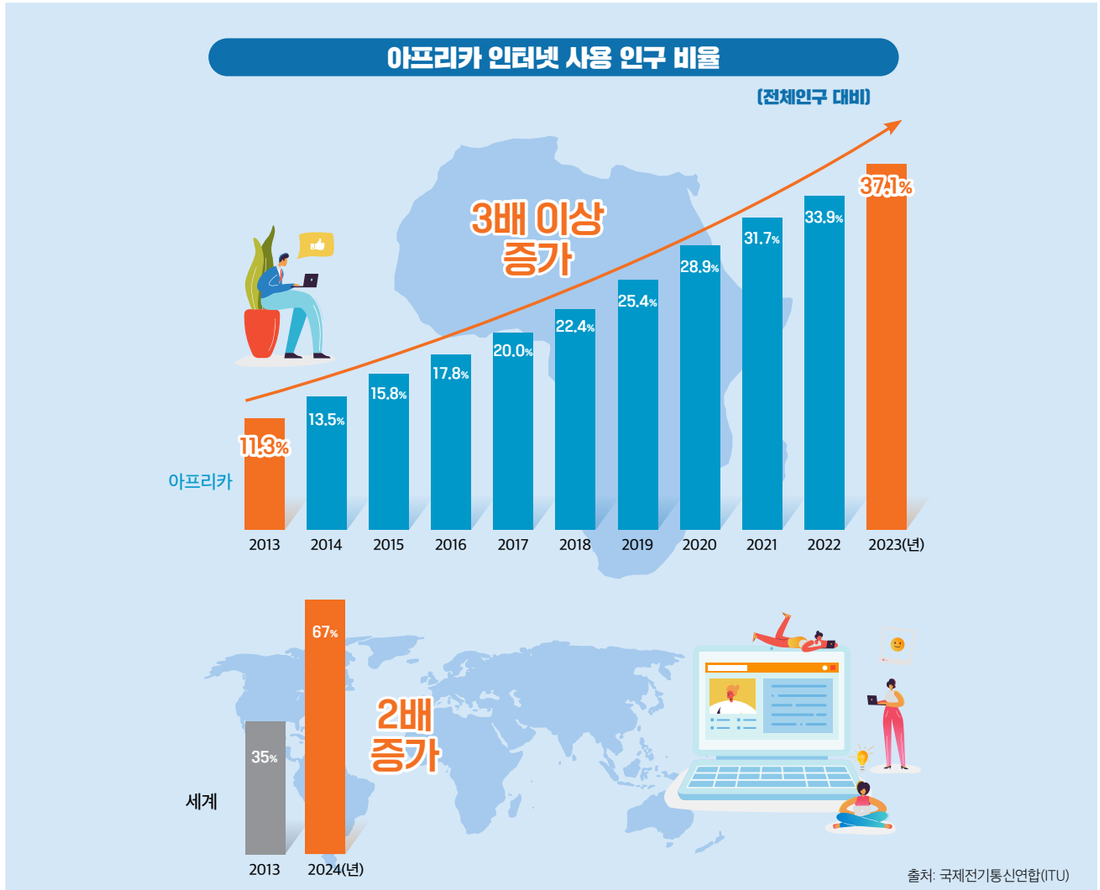
코이카와 같은 ODA(공적개발원조) 기관과 협력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르완다의 국가 교육 목표와 정책에 부합하는 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STEM 교육 개선, ICT 통합 확대, 포용적 교육 증진, 학교 인프라 확충 및 장비와 가구 제공, 강사 양성 등의 분야가 포함됩니다. 또 자금과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기구나 파트너로부터 공동기금을 신청하여 협력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르완다 교육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코이카의 對아프리카 디지털 ODA 사업

디지털 기술이 변화시킬 아프리카의 미래

아프리카 디지털 산업은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전체 인구에서 인터넷 사용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3배 넘게 늘었고, 스마트폰 이용 인구도 전체의 60%를 넘는다. 모바일 네트워크 접근 가능 인구도 10억 명 이상이다. 국제금융공사(IFC)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인터넷 경제 규모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5.2%에 달하며 역내 경제에 약 1,800억 달러(약 247조 원)의 기여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기술이 여러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목받는 가운데 아프리카연합(AU)에서도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에 적극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우리 정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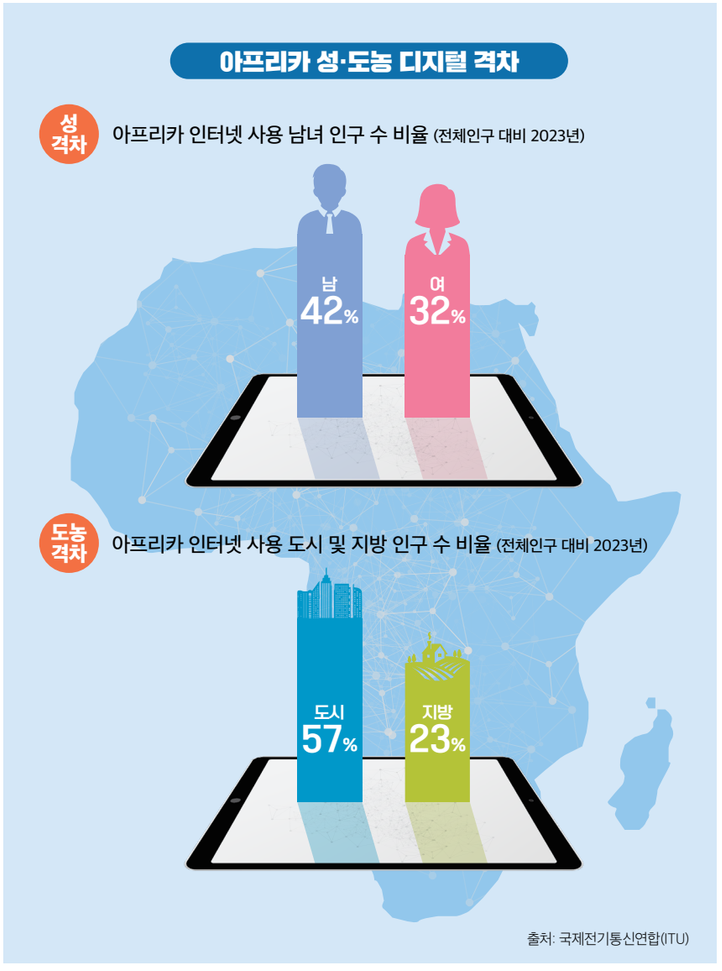
2024년 진행 중인 프로젝트 사업을 살펴보면 디지털 역량 개발 및 창업 지원 사업 분야에서 9개국 13개 사업, 전자정부 사업에서 7개국 1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프리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 구상(Tech4Africa)'을 발표해 ▲청년 디지털 기술혁신 역량 배양 ▲디지털 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 구축의 세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이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디지털 ODA(공적개발원조)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눈여겨보고 관련 ODA 사업을 확대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함에 따라 '디지털 ODA 사업 추진 전략(2021~2025)'을 수립해 전략적인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수행한 디지털 ODA 사업만 총 366건으로 예산 규모도 전체 사업의 24.2%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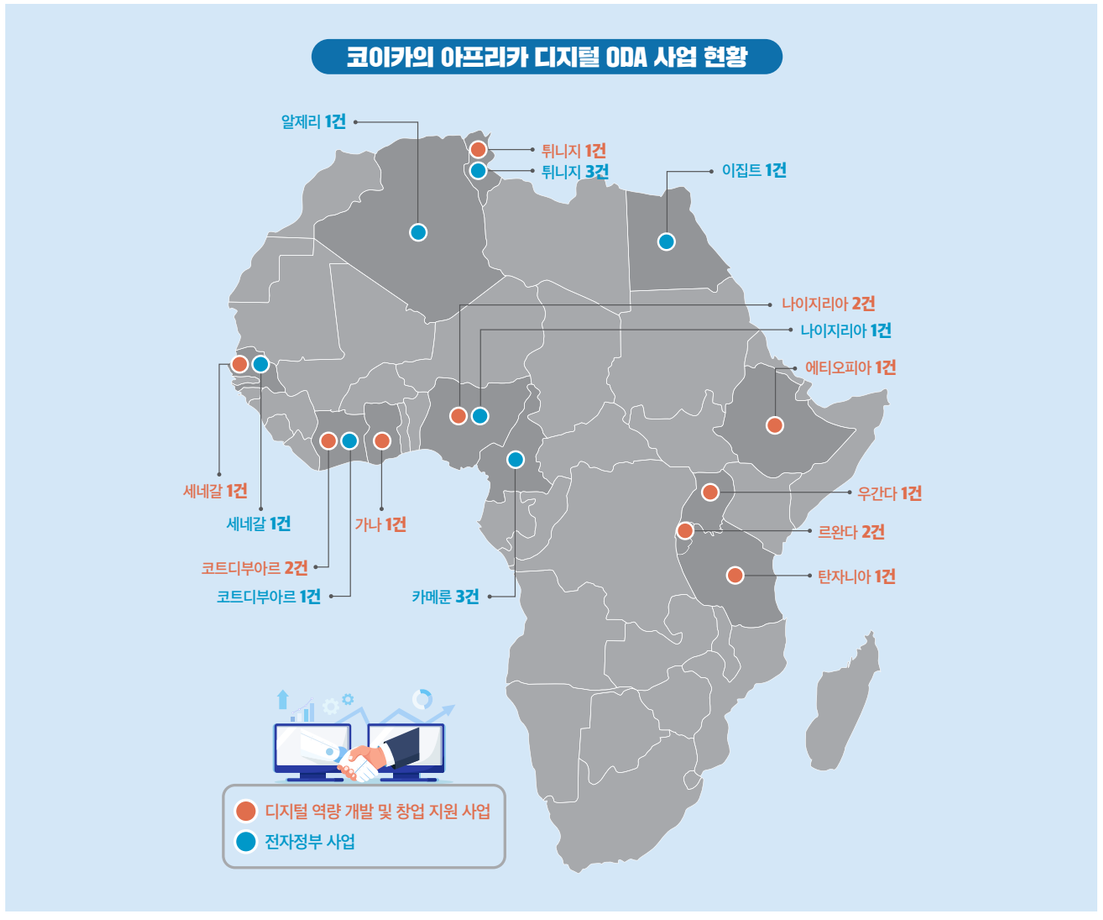
디지털 ODA는 아프리카 전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2024년 진행 중인 프로젝트 사업을 살펴보면 디지털 역량 개발 및 창업 지원 사업 분야에서 9개국 13개 사업, 전자정부 사업에서 7개국 1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손송희 코이카 디지털보건사회개발팀장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기회와 동시에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한다. 손송희 팀장은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 모바일 기술의 빠른 보급과 적극적인 활용,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이라는 큰 기회를 맞고 있으나 인터넷과 전기 등의 인프라 부족, 디지털 기술 보급의 불균형에 따른 디지털 격차,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의 극복 과제도 당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 팀장은 "코이카는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경제 진입 가속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IT 기술과 전자정부 사업은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만큼, 코이카는 아프리카 개별 국가들의 인프라와 디지털 정책, 4차산업 생태계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코이카가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3대 시그니처 사업의 첫 번째 분야는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이다. 이 밖에도 '보건의료 서비스 고도화', '혁신적 농촌 공동체 개발' 등 다른 시그니처 사업 추진에도 디지털 기술은 중요한 해결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이카의 아프리카 디지털 ODA 주요 사업 현황

국가	사업명	지원 규모
르완다	르완다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설립 사업(2021~2024)	710만 달러
에티오피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ICT 기반의 창업 및 중소기업(SMEs) 육성 지원 사업(2020~2026)	1,000만 달러
우간다	우간다 마케레레 대학 ICT 교육 환경 조성 사업(2023~2028)	1,220만 달러
가나	가나대학교 연구 및 ICT 혁신센터 건립 사업(2021~2026)	900만 달러
탄자니아	탄자니아 여성 청소년 STEM 교육 지원 사업(2023~2026)	1,000만 달러
이집트	정부서비스청(GAGS)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 사업(2022~2026)	790만 달러
알제리	알제리 전자무역을 위한 싱글윈도우 시스템 구축 사업(2021~2025)	750만 달러
카메룬	전자정부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2022~2026)	823만 달러

우간다 WHO 동부 부소가 지역 모자청소년보건 시스템 강화 사업

더 건강한 엄마, 더 건강한 아이를 위한 노력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동쪽으로 150㎞. 차량으로 3시간 넘게 달리면 부소가(Busoga) 지역이 나온다. 2016년 우간다 인구보건조사(UDHS)에 따르면, 부소가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6.1명으로 우간다 국가 평균인 5.4명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모자·청소년 보건 수준은 국가 평균치에 못 미친다.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53명,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84명으로 국가 평균인 43명과 64명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필수 예방접종을 받은 12~23개월 영아의 비율은 45%로 국가 평균보다 10% 낮고, 실질적으로 국가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제왕절개술을 받은 여성 비율은 2.6%로 국가 평균 6.2%와 비교해 크게 낮았다.

코이카가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부소가 지역의 병원과 보건소에 모자보건시설을 강화하고 의료 기자재를 지원하는 성생식모자청소년보건(RMNCAH) 서비스 개선 사업을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5년째. 구체적으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급차와 기자재를 조달하고, 보건 인력을 포함한 현지 주민 대상의 보건 역량 강화 교육도 이뤄졌다. 사업 대상은 부소가 지역 내 부지리(Bugiri), 부엔데(Buyende), 카물리(Kamuli), 이강가(Iganga), 마유게(Mayuge)로 총 5곳이다. 이번 사업에는 코이카 900만 달러, WHO 100만 달러 등 총 1,000만 달러(약 136억 원)가 투입됐다.


1

우간다 마을에 앰뷸런스 달린다

부소가에서 산모를 태운 앰뷸런스를 보는 건 이제 익숙한 풍경이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오토바이로 산모를 옮겼다. 그마저도 열악한 보건의료 시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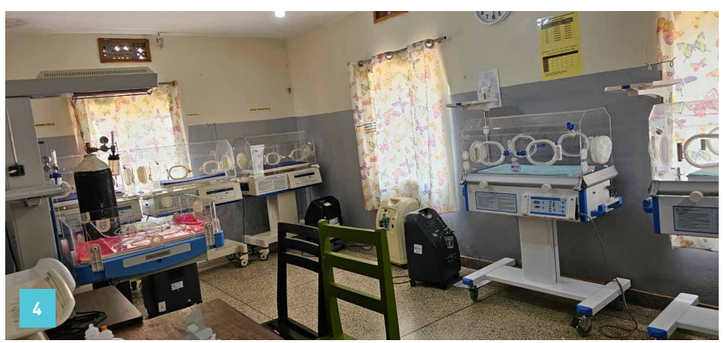
3

탓에 병원을 찾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코이카와 WHO의 지원으로 보건소와 병원이 제대로 된 의료장비를 갖췄고,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 24시간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병원을 찾으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쌓였다.

코이카는 의료시설에 분만대, 도플러, 신생아 기도 내 튜브, 신생아 소생술 테이블 등과 같은 응급산과 서비스에 필요한 의료 기자재를 지역 보건소 30곳을 대상으로 꾸준히 제공했다. 코이카에서 지원한 앰뷸런스는 총 7대다. 앰뷸런스 한 대당 월 평균 146명의 환자를 이송한다. 앰뷸런스의 소유권은 현재 운영 중인 보건소로 이양하고, 운영 예산을 지역사회 및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해 정상 운영 중이다. 코이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앰뷸런스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코이카가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부소가 지역의 병원과 보건소에 모자보건시설을 강화하고 의료 기자재를 지원하는 성생식모자청소년보건(RMNCAH) 서비스 개선 사업을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4

현재 우간다 보건부에서 수립 중인 '국가 앰뷸런스 운영 가이드라인'에 코이카 사례가 실릴 수 있도록 논의 중이기도 하다.

현지 보건소 의료진은 산전관리 비율과 보건소 내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테면 이강가 지역의 올해 1분기 임산부의 산전관리 비율은 전년 4분기 대비 25% 향상됐다. 사업 전 보건소 내 출산 사례는 월 평균 2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에만 66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태아 심장박동을 측정하는 도플러를 통해 아기의 심장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산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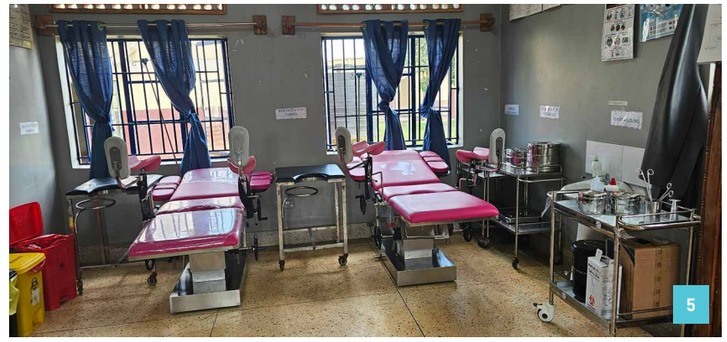
'의료 인력부터 학생까지' 넓고 깊은 교육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중점 사업 중 하나다. 고사양 의료장비가 제공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코이카는 의료 종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포괄적 응급산과, 캥거루 케어, 산전후 출산 등 관련 교육을 완료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의료 교육과 연수를 받은 전문 인력은 2,067명에 이른다. 또 35개 지역 거점에 의료팀을 육성하기도 했다. 특히 산모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를 비롯해 산후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상담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보건 수준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도 눈에 띄는 변화다. 교사에게 이뤄진 보건 교육이 다시 학생에게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교사 699명과 학생 2,464명에게 성보건위생 관련 교육도 진행했다. 프로젝트에 포함된 학교마다 '보건클럽'을 설치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클럽에 속한 학생들은 재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를 만들거나 보건을 주제로 한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육 효과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카물리 지역의 키데라중등학교에서는 2023학년도에 청소년 임신 사례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아동 보호 분야에서 이런 성과를 달성한 건 처음이다.


5

최근에는 학교와 지역 보건소 간 교류도 이뤄지고 있다. 마유게 지역에서는 교사 대상 청소년 성생식보건 역량 강화 이후 보건시설과의 연계를 위한 학내 청년위원회를 꾸렸다. 참석 학생 수는 초기 100여 명에서 최근 600명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2월에는 키예레라 보건소에서 키예레라중등학교에 '찾아가는 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와 의료기관 연계 교육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이강가 지역의 나키고중등학교는 인근의 이강가중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성생식보건 및 권리(SRHR) 교육을 제공하면서 자체적으로 보건 지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우간다 성생식모자보건을 위한 개발 파트너 간 협업의 성공 사례이며 특히 2024년부터는 보건소 개보수와 물 공급 시스템 정비로 수혜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우간다 동부 부소가 지역의 산모와 아이들이 건강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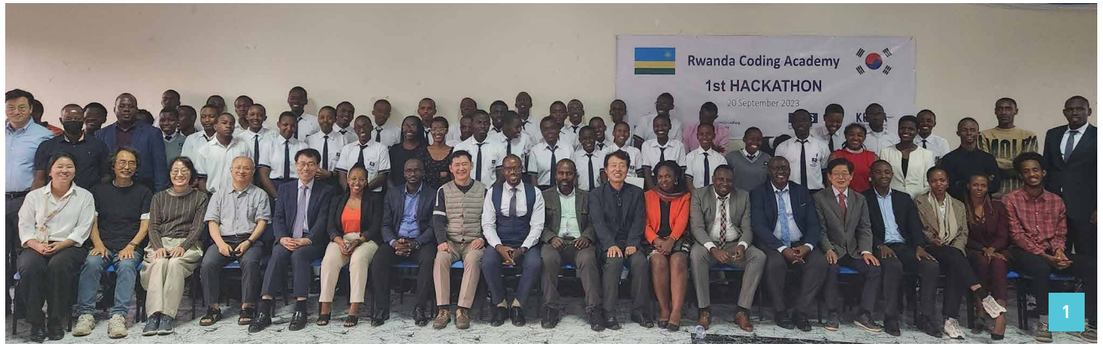
1 부옌데 지역 청소년 성생식 교육 현장
2 마유게 지역 청소년 성생식 교육 현장
3 이강가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모 교육
4 코이카가 지원한 마유게 지역 보건소 인큐베이터
5 카물리 지역 보건소 내부 모습
6 부옌데 지역 보건소 외부 전경



6

르완다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역량 강화 사업 外

‘교육이 ICT를 만날 때’ 르완다 교실에서 생긴 일



1

아프리카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이동통신과 관련한 규제들이 완화되고 기업 간 경쟁 등을 허용하면서 휴대폰 기기 가격이 하락했고 휴대폰 사용 인구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유엔(UN)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아프리카 인구 100명당 휴대폰 가입자 수는 82명으로 2010년 44명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도 2010년 3명에서 2022년 26.5명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ICT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아프리카의 많은 청년이 모바일 기술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고, 이를 통해 산업과 비즈니스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금융, 교육, 보건의료, 농업, 유통, 공공행정 등 거의 모든 경제 사회 영역에서 ICT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개선했다.

코이카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아프리카의 ICT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ICT 교육 강화 지원을 결정했다. 그중에서도 ICT 분야에 풍부한 잠재력을 갖춘 르완다를 사업 지역으로 정하고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르완다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역량 강화 사업’과 ICT 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르완다 교사 및 예비교사 ICT 교육 역량 강화 사업’, 르완다 국민의 디지털 문해율을 높이는 ‘디지털 대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디지털 문해율 증진 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실시했다.

* **출처:** UN E-Government Knowledgebase

교육으로 ICT 분야 급성장에 대응

르완다 소프트웨어 특성화고(Rwanda Coding Academy)는 2019년 설립한 르완다 최초의 소프트웨어 특화 교육기관이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모델로 하여 매년 60명의 우수 청소년을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만들었다. 설립 당시 대통령령으로 신속히 추진됐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학교 건물도 마련하지 못해 냐바후 지역 직업기술교육훈련원의 건물을 일부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교육과정도 잘 갖춰지지 않았다. 게다가 특수목적고에 대한 인가와 졸업장 인증 정책조차 수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코이카는 르완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기반 역량을 강화하고 르완다의 ICT 산업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2021년부터 710만 달러(약 83억 원) 규모로 ‘르완다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진행한 사업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기존 교육과정을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 특성화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특화 인증제도, 운영 및 품질관리 지침, 전용 교육과정,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꼭 필요했던 졸업장 인증 문제도 해결했다. 코이카는 학교 인가와 졸업장 인증, 품질관리 등을 위한 필수적 정책 수립과 실행을 통해 제도적 위상을 정립하고 졸업장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동시에 더 나은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캠퍼스 신축과 기자재 지원도 진행 중이다. 기초 인프라가 부족했던 르완다 소프트웨어 특성화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이카는 2025년 하반기까지 교육동, 학생교류동, 남녀 기숙사 각 1동씩을 포함한 4,792m² 규모의 부지 캠퍼스를 신축할 계획이며 멀티미디어랩, IOS랩, 임베디드랩 등 다양한 학습공간 구성을 위하여 학교 내 필요한 가구, 컴퓨터, 네트워크 및 각종 ICT 실습 기자재를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훌륭한 인재는 훌륭한 교사로부터

코이카는 학생들을 가르칠 ICT 교육 인력 양성에도 힘썼다. 2015년 르완다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적정 자격을 갖춘 컴퓨터 교사가 전체 교사 수의 6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르완다 ICT 교육 인력 양성을 위한 ‘르완다 교사 및 예비교사 ICT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700만 달러(약 80억 원) 규모로 이뤄졌다.

이 사업은 르완다 중등교사의 ICT 활용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인 전문가와 르완다 전문가로 합동 TF팀을 구성해 르완다 환경에 적합한 교사연수 과정을 개발했다. 특히 유네스코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유네스코 에센셜(UNESCO Essential) 이수 인증서 등을 수여해 연수 프로그램의 공신력을 높였다. 더불어, 교사연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인 전문가와 유네스코, 교육부, 교육청, 르완다 국립대학 등이 참여해 교사연수 교재도 개발했다.

또 지역별 권역 ICT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여 ICT를 활용한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르완다 정부와 스마트 교실 표준을 공동 수립하고, 전국의 30개 군(district)별로 2개 이상의 학교를 선정하여 교실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해당 공간에는 노트북 컴퓨터, LCD 프로젝터, 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장비 등을 지원했다.

아프리카 ICT 허브로 발돋움

르완다는 ICT를 활용한 다양한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국민의 디지털 문해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책의 확산과 적용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르완다의 디지털 문해율은 20.4% 정도이며, 15~24세 청소년의 컴퓨터 문해율은 6.5% 수준으로 매우 낮다. 또한 디지털 문해율의 성별 격차 문제도 심화됐다.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르완다의 전반적인 인터넷 활용률은 23.8% 수준으로 낮았다. 이를 기반으로 성별에 따른 정보지식 접근 편차지표를 적용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70.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코이카는 르완다 국민들이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고 디지털 문해율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사회의 디지털 문맹 퇴치 교육에 앞장설 청년 디지털 대사(Digital Ambassador) 약 400명과 디지털 대사 관리자(Digital Ambassador Supervisor) 30명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각종 ICT 활용 및 강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 후 지방으로 파견돼 디지털 소외지역 주민들의 ICT 역량 강화를 돕는다.

특히 디지털 대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르완다의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도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의 유관 서비스와 기술을 체험하고 탐방하는 초청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 목적, 관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서비스접근센터 개선 전략 및 이행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시범 서비스접근센터 구축을 위한 기자재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3

르완다를 거점으로 진행된 ICT 분야의 다양한 지원 사업은 뛰어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원 사업을 통해 ICT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중등교사는 약 3만 명으로 이는 르완다 중등교사의 94%에 달한다. 세계은행은 코이카가 개발한 커리큘럼을 활용해 전체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제공하는 중이다. 르완다 내 보급한 스마트 교실도 처음 계획했던 60곳에서 69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르완다 최초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소프트웨어 특성화고등학교의 1회 졸업생 57명 중 56명이 국내외 유수 대학교의 학사 장학 프로그램에 추천됐으며, 총 9명이 컬럼비아대학교 등 미국 유명 대학교로 진학하여, 수원국 내 영재고등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 현재 61개 완공, 8개 추가 건립 중

1 ICT 시스템 개발 해커톤 대회: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2 Innovation Africa 2023: 정부 주최 국제 ICT 콘퍼런스에서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학생의 사례 발표
3 Teachers Innovation Day: ‘교사 및 예비교사 ICT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교사 및 학생 초청 성과 공유 행사

르완다 소프트웨어 특성화고(RCA) 졸업생 인터뷰

“ICT는 아프리카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

코이카는 2021년부터 아프리카 정보통신기술(ICT) 대응 인력 양성과 관련 인프라 확산을 위해 르완다에서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착수 3년이 지난 현재, 코이카가 지원한 르완다 소프트웨어 특성화고(Rewanda Coding Academy, 이하 RCA)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 RCA 졸업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르완다 지원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재조명해 본다.

Q. 아프리카에서 ICT 기술이 왜 중요한가요?

베리테 마쿠자 무가보(Verite Makuza Mugabo) 세계는 현재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ICT 기술이 있죠. 아프리카도 이런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특히 자원이 풍부해 자원을 활용한 하드웨어 제조 분야에 큰 강점이 있지만 산업 측면의 발달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잠재력을 강화하려면 젊은층에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교육이 중요한 이유죠.

셸론 코부신게(Shallon Kobusinge) RCA에 입학하기 전에 저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 세상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진행된 RCA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수행해야 하는지 넓은 시야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ICT는 교육, 기후변화, 교통 등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젊은층이라고 생각합니다.

Q. RCA에서 주로 어떤 분야를 공부했나요?

제리베 이심웨(Gervais Ishimwe) RCA에서는 STEM이라고 불리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학 후 수학, 물리학 과정과 함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등의 커리큘럼에 집중했습니다.

Q. RCA 졸업생들은 현재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디디에 무네제로(Didier Munezero) RCA를 졸업한 재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체 취업을 희망하기도 하고, 학업에 뜻이 있는 경우 해외 대학 진학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도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노터데임대학교(University of Notre Dame), 리하이대학교(Lehigh University) 등 미국의 대학교에서 컴퓨터, 데이터, 정보 분야 등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1

Q. 대학 진학을 통해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나요?

셸론 코부신게 RCA 졸업 직후 산업계에 바로 발을 들일 수 있었지만 생산·제조 분야보다는 본질적인 연구 분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RCA를 다니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내장해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임베디드 시스템, 사이버 보안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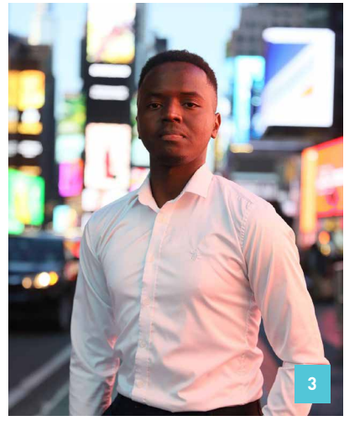
에기데 느와리(Egide Nwari) 저는 IT 기업가가 되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RCA에서는 컴퓨터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았다면, 대학에서는 IT 관련 비즈니스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과 비즈니스 관련 학위를 모두 취득하면 미래의 꿈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ICT 분야에 대한 배움의 열정이 대단하군요. 처음 RCA에 등록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베리테 마쿠자 무가보 현재 아프리카에는 많은 ICT 관련 인프라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는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문제는 ICT 분야의 학문적 관심도가 여



2



3

전히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RCA가 매우 좋은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RCA에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를 배울 수 있었고, 교육을 바탕으로 산업계에서 다양한 인턴십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디디에 무네제로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진화 중입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선 풍부한 이론적 교육과 다양한 실습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CA는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분야를 이해하고 이에 맞춘 교육 커리큘럼을 적절히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에기데 느와리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IT 기업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ICT 기술이 만드는 변화는 혁신적이고, 영향력은 거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을 통해 르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만큼 젊은 친구들에게 기술의 혁신과 창의성에 대해 알려주고 싶고, 이는 결국 사회 혁신 솔루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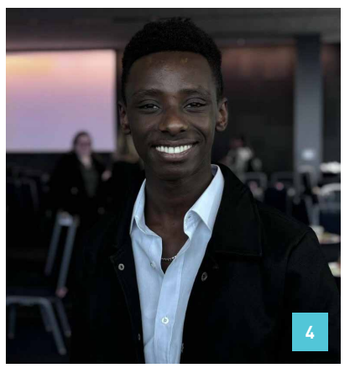
제리베 이심웨 RCA 졸업 후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해 머신러닝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기계와 관련한 기술을 혁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에 동료 르완다 엔지니어들과 협력해 르완다가 직면한 기술 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가 성장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셸론 코부신게 우선 르완다와 함께 협력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었고, 교육을 통해 점차 사회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RCA에서 받았던 지원 덕분에 현재는 졸업생 대부분이 르완다의 미래 세대를 위해 힘을 실어준다는 거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디디에 무네제로 우선 르완다에 대한 지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이카의 지원 덕분에 저와 제 동료들은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이카를 통해 좋은 기회를 가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뜻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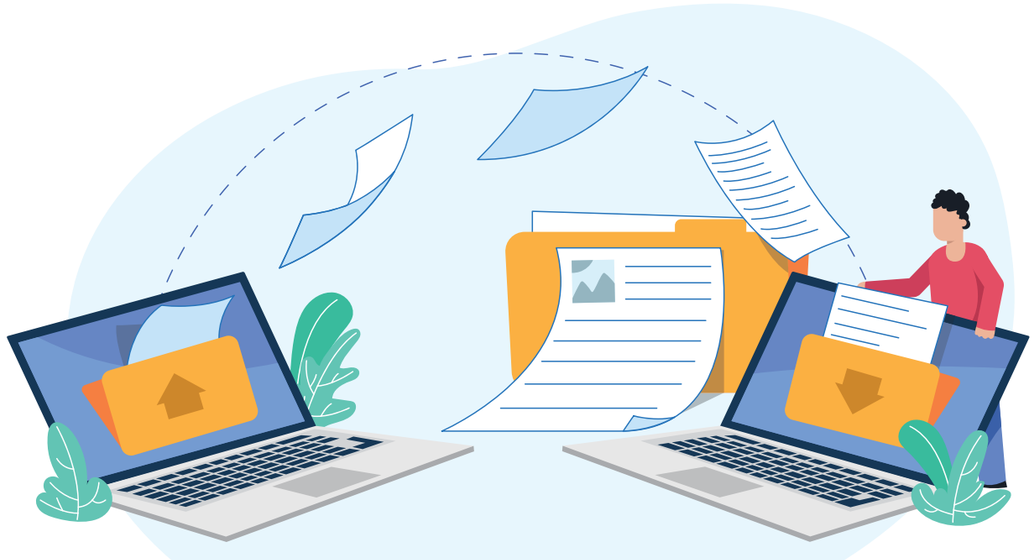
1 디디에 무네제로(Didier Munezero)
2 셸론 코부신게(Shallon Kobusinge)
3 제리베 이심웨(Gervais Ishimwe)
4 에기데 느와리(Egide Nwari)



4

알제리 전자무역을 위한 싱글윈도우 구축 사업

알제리 통관 시스템을 싹 바꾼 '싱글윈도우'



해외직구의 시대.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낯설지 않다. 올 초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1,377만 건이던 통관고유부호 누적 발급 수가 지난해 말 2,544만 건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2,50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용도로 특화된 식별 부호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 이처럼 인터넷 기반의 전자통관 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 세금납부 등 모든 통관 절차를 쉽고 빠르게 처리한다. 특히 한국의 우수한 전자통관 시스템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해외 각지로 전파되고 있다. 코이카가 2021년부터 5년간 알제리에 전자통관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무역 싱글윈도우(Trade Electronic Single Window) 시스템'이다. 알제리의 25개 정부 기관의 수출입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싱글윈도우를 통해 현재 100개에 달하는 무역 관련 서식을 전자문서화하고 알제리 관세청(DGD)과 수출입 관련 국가기관(CBRA) 간 정보 교환·활용은 물론 무역 거래 시 전자결제(e-payment)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이 된다.

정부 25개 기관 수출입 업무를 '원스톱'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 따르면, 알제리의 국제무역 지수는 190개국 중 172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통관 업무는 여전히 수작업과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출입을 위한 서류 발급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통관 검사를 위한 각 부처의 협력 부족은 무역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렇다 보니 통관 절차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도 피할 수 없다.

알제리의 무역요건 서류 처리 시간과 비용은 각각 주변국가의 176%, 154%로 높은 편이다. 장봉희 코이카 알제리사무소 소장은 "한국의 관세 업무를 전자로 처리하는 유니패스처럼 수출입 행정 업무를 싱글윈도우로 단일화해서 무역에 관련한 여러 부처의 업무를 통합할 수 있다"며 "쉽게 말해 의약품을 수출입한다고 했을 때 관세청 외에 식약처 허가도 필요한데 이 두 기관을 연결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알제리 정부는 관세 정보 현대화 사업에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해 추진 중이다. 알제리는 2017년 한국 관세청에 전자통관 시스템 도입을 의뢰했다. 전체 3,000만 달러 예산 중 1차로 2,300만 달러를 알제리 정부 자체 예산으로 한국 업체를 통해 추진하고, 2차로 750만 달러 규모의 싱글윈도우 사업을 코이카와 함께 추진 중이다. 알제리 외교 기조상 매우 이례적인 요청이다. 장봉희 소장은 "식민지의 상흔과 독립전쟁의 아픔이 아직 남아 있는 알제리는 외세의 영향력을 우려해 세계은행 등 개발은행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같은 유상원조 기관으로부터 차관 사업을 하지 않는 게 국가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관세와 같이 민감한 분야에서 한국과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은 기술협력 파트너로 한국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코이카 입장에서도 수원국 정부가 1차로 대규모 자체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사업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알제리 정부의 강한 오너십 아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사업 성과를 내기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알제리 넘어 북아프리카 3국에 韓 노하우 전파

사업은 올해로 4년 차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조만간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5월부터 교육과 동시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코이카는 2026년이면 유관기관별 요건 확인 전자문서 처리 비율이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봉희 소장은 "알제리 관세청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며 "알제리 정부는 기관별 수출입 업무를 단일화해 물류 시간을 단축하고, 밀수나 탈세 방지로 국가 행정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이카는 알제리를 넘어 주변의 모로코,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3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경제 다양화 기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무역 및 경제적 다양성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은 수출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직무훈련 프로그램과 취업 알선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522만 달러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세 나라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기술의 수요와 공급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를 해결할 역량도 부족한 상태다. 정부 교육 시스템에는 민간 기업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알제리는 정부 차원에서 고용시장을 관리하는 수행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모로코 역시 직업공공행정기관(ANAPEC)이 미숙련 노동자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직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튀니지에서는 교원연수기관(CENAFIF)을 통해 캐나다의 경쟁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부문별 기술 수요 평가를 수행했지만 수년 전 사업이 중단됐다. 2016년 국제노동기구는 이 사업을 통해 기술 수요 평가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 기구 설립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도 실행되지 않았다.

코이카는 이 사업으로 ▲가전제품 ▲올리브 ▲대추야자 등 3개 산업의 무역 가치를 높이고 산업의 밸류체인을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장봉희 소장은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6개 축(6 Axis)을 제시해 정부별 액션 플랜을 제공했다"며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제외한 다른 수출 품목의 발굴을 추진 중인 알제리 정부에 중요한 사업 성과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1

나이지리아 공립 초·중학교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역량 강화 사업

나이지리아 교육 '스마트'를 입다

우리나라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시작한 것은 불과 30년 전이다. 정부는 1996년 '1단계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시작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23년 디지털 교육백서'에 따르면, 국내 초등학생 2명당 1대꼴로 컴퓨터나 태블릿PC가 보급됐다. 교사 1인당 디지털기기 보유 대수는 2.13대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2025년부터는 AI(인공지능)가 보조 교사로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사전에 진단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한국의 선도적인 디지털 교육 모델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구 1위 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코이카의 지원으로 '스마트스쿨' 구축이 한창이다. 디지털 기반의 교육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2021년 시작한 이 사업에는 예산 1,041만 달러(약 140억 원)가 2025년까지 투입된다.

나이지리아 연방교육청(UBEC)은 코이카의 지원으로 연방수도를 포함한 전국 거점 6곳에 '스마트스쿨'을 건립하고 있다. 스마트스쿨은 바우치주, 카노주, 나사라와주 등 전국 37곳으로 고루 퍼져 있다. 주정부는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연방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고, 코이카는 스마트스쿨 운영 역량을 구축해 교원 연수와 ICT(정보통신기술) 학습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 4,320명이 직접 디지털 교육을 받고 초·중등 교사 480명이 역량 강화 연수를 받는다. 특히 시범학교를 거점으로 ICT 교수용 콘텐츠를 활용하는 전국의 교사와 학생들도 디지털 교육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나이지리아 교육 현장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격차가 큰 편이다. 나이지리아 연방교육청의 디지털 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립초등학교의 컴퓨터 보급률은 5.6%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사립초등학교의 컴퓨터 보급률은 52.2%에 이른다. 특히 전력시설은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14% 정도만 구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학교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로 공립교육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학교는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6학급 등 20학급 규모로 마련된다. 학급당 학생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비롯해 방송실, 컴퓨터교육실, 과학실, 도서관, 시각·청각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교실도 별도로 마련된다. 코이카는 스마트스쿨을 중심으로 ICT 콘텐츠 활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실 내 학습 기자재, IT 기기, 방송실 구축 등을 지원했다.

연방교육청은 나이지리아 전역에 ICT 기반 공립학교 모델을 만들어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을 향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 최소 5년간 스쿨 매니저를 별도로 고용해 학교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한 뒤 주정부에 인계할 예정이다.


2


3


4

> 아프리카 인구 1위 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코이카의 지원으로 '스마트스쿨' 구축이 한창이다. 디지털 기반의 교육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교사에 대한 투자가 학생을 위한 투자"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나이지리아는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디지털이나 ICT 관련 문해율은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공·사립 교사의 컴퓨터 문해율은 평균 59% 수준이다. 지역 편차를 줄이는 것도 관건이다. 지역 거점 컴퓨터 문해율 수준은 북동지역 45%, 북서지역 48%, 남동지역 64%, 남서지역 74% 등으로 나타났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드라이브를 거는 중이다. 연방통신디지털경제부는 국가 디지털 경제정책전략(2020~2030)을 통해 2025년까지 광대역 통신보급률을 현재 37.8%에서 70%까지 높이고, 현재 1.5Mbps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를 2025년까지 도시 기준 25Mbps, 지방 기준 10Mbps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연방교육청은 교육 추진 전략을 통해 ICT 기반 교수 학습이 가능한 교원 10만 5,000명을 양성하고 IT 전문 인력도 2,000명 키워낸다는 목

*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STEM Education (IJRSE) A Study of Computer Literacy Among Stm Teachers in Colleges of Education in Nigeria(May 2020)



5

표를 내걸었다.

코이카는 지방분권이 명확한 나이지리아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연방정부 수준에서 스마트스쿨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연방교육청과 주정부 차원에서 학교 완공과 개교에 맞춰 학교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스마트스쿨 가이드라인 개발을 제안했다. 특히 스마트스쿨 위원회를 통한 주정부 간 협업을 유도해 전국으로 확대 적용의 길을 열어뒀다.



6

이번 사업에서 집중한 부분은 교원 ICT 역량 강화다. 소수의 ICT 선도교원을 키워 일반교사의 역량을 향상하고, 일반교사는 ICT 활용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양성한 선도교원과 개발한 프로그램은 향후 나이지리아 스마트스쿨에서 지속적으로 교사 역량 강화에 이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초중등 수학, 과학 등 교과별 연구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했다. 교과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학교 기반의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이지리아 교수 상황에 적합한 ICT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콘텐츠는 교육연구개발원(NERDC)을 통해 표준 모델로 인증해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이카는 오는 8월 나이지리아 연방교육청과 함께 6개 주별 '스마트 에듀케이션 페어'를 개최한다. 페어에서는 학교 운영, 교수 학습 방법, 학생 성취도 면에서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포상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혁신적 접근과 효과적 교육 방법을 채택한 학교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에듀케이션 페어는 교육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며, 우수한 교육기관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초청연수: 세종시 조치원 소재 초등학교 방문
2 교원 초청연수: 코엑스 에듀테크 박람회 참가
3 국립중앙과학관 디지털 디바이스 체험
4 디지털 리터러시/교육학/저작권 교육
5 한-나 스마트스쿨 교장단 회의
6 선도교원 현지 연수: 마이크로 티칭 발표

허성용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대표

뒤집어 보는 아프리카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전 세계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여러 국가가 아프리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상급 회담을 개최해 왔습니다. 일본은 1993년부터 도쿄 아프리카 개발 국제회의(TICAD)를 통해, 중국은 2000년부터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을 통해 정상급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도 아프리카와 협력해 왔으며, 2024년 1월에는 이탈리아-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한국-아프리카 협력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외교부 한-아프리카 포럼(KAF), 기획재정부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포럼(KOAFEC)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한국에서도 아프리카 국가원수를 초청해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국가가 아프리카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사회에서 현재 아프리카 대륙이 가지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우선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아봅시다.

아프리카에 스키장이 있다고?

아프리카는 얼마나 넓을까요? 정확하게 답하려면 우리가 자주 보는 세계지도의 숨겨진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Mercator projec-



허성용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대표

이력사항 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했다. 탄자니아와 세네갈에서 국제자원활동가로 일했으며, 2013년 아프리카 지역 전문 국제협력·옹호 NGO 아프리카인사이트(Africa Insight)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도서 <있는 그대로 탄자니아>의 저자이며, 외교부 산하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아프리카 54개 국가 이름을 한 번씩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름이 생소하고 잘 몰랐던 나라의 경우 새로운 발견과 배움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날씨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는 '덥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대륙은 중앙에 적도를 끼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사하라사막 남쪽 지역은 고온다습하거나 건조한 기후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기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같은 위도에 있더라도 고도가 높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연중 기온이 온화해 생활하기에 무척 쾌적한 날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로코, 알제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에서는 겨울철에 눈이 내리거나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가장 더운 도시 중 하나인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쳐 만든 '대프리카'라는 표현은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한 기후와 날씨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과입니다.

그럼 아프리카에는 몇 개의 언어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배경지식이 없이는 맞히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아프리카에는 약 2,00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한 나라에만 약 50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이런 언어 다양성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세계가 주목한 아프리카의 문화와 경제

아프리카는 문화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월레 소잉카(Wole Soyinka)와 압둘라자크 구르나(Abdulrazak Gurnah) 같은 작가들의 작품, 매년 1,000편 이상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나이지리아의 '놀리우드(나이지리아와 할리우드의 합성어)' 영상 콘텐츠 산업, 약 250만 명이 함께하는 모로코의 대규모 음악축제 '마와진 페스티벌(Mawazine Festival)'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에 더해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음악 장르 '아프로비츠(Afrobeats)'는 최근 유명 K팝 가수도 그 리듬이나 춤을 접목한 곡을 발표할 만큼 큰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피카소의 작품에 영감을 주기도 한 콩고와 서아프리카 지역의 전통 마스크 조각과 탄자니아의 팅가팅가 미술 장르(탄자니아 미술가 에드워드 사이디 팅가팅가의 작품 스타일에서 유래한 독특한 아프리카 미술 장르), 여기에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진 작가와 아티스트들의 뛰어난 작품은 국경을 넘어 많은 대중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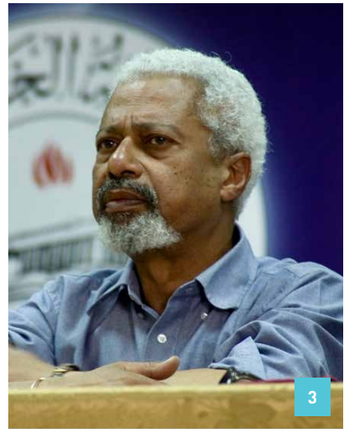
경제적으로는 국가와 도시마다 차이가 있으나,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 몇 년간 에티오피아, 가나, 코트디부아르와 같은 나라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를 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규모와 낮은 출발점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의 경제를 이끄는 주요한 나라들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시 중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케냐의 나이로비, 이집트의 카이로 등이 발전을 선도하는 곳으로 이들 도시는 금융, 무역, 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이집트, 가나 등에서는 젊은 창업가들이 스타트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리프프로깅(Leapfrogging)' 같은 기술 혁신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케냐의 M-Pesa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의 핀테크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세계 최대 단일 규모의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체결 및 추진이 시작됐으며, 이는 약 1조 3,000억 달러 규모의 단일 시장을 형성할 것입니다. 향후 관세가 철폐되고 무역장벽이 완화되면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아프리카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프리카는 각박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인류 본연의 가치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구촌 이웃으로서 아프리카 대륙의 고유한 가치와 유산을 배워야 합니다.

아프리카와 더불어 사는 고민과 성찰 필요해

그간 '아프리카'라는 단어 안에 이런 다양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세계의 경쟁적 협력 확대 속에서,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한 상호 발전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넓고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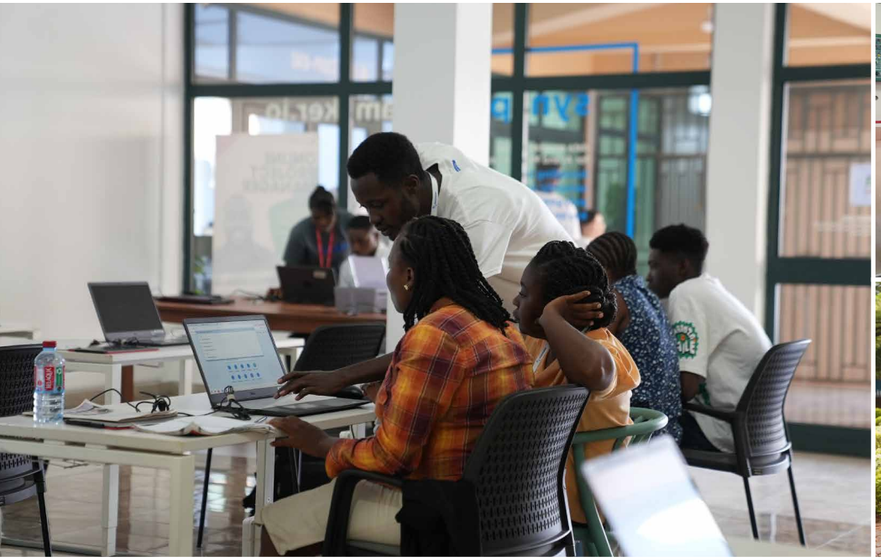
물론 바쁜 일상에서 "내가 꼭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위적인 접근보다는, 독자 여러분이 가진 관심사와 연결된 아프리카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처럼 우리의 생활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아프리카'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며 지적 확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아프리카 대륙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식민지배와 노예무역 등 근대사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각박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인류 본연의 가치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인간 소외, 팬데믹, 세계경제의 침체, 기후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이 시대에, 지구촌 이웃으로서 아프리카 대륙의 고유한 가치와 유산을 배워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직접 가보지 않았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설고 먼 곳으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짧은 지면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아프리카에 대해 새롭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길 바랍니다.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아닌, 우리와 닮아 서로 배울 것이 많은 지구촌 시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프리카를 특정 대륙과 국가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동등한 친구와 이웃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 시민으로 함께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1 모로코에 건설된 스키장
2 탄자니아의 미술 장르 '팅가팅가'를 그리는 작가
3 탄자니아 소설가인 압둘라자크 구르나 (이미지 출처: 위키피디아)












KOICA in Africa

청년이 변하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코이카는 아프리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견인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디지털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다양한 청년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밝은 미래, 코이카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1

김가람 KBS1 <걸어서 세계 속으로> PD

슬픔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그곳, 남아프리카공화국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해안선을 따라 아시아인, 유럽인, 아프리카인이 몰려들었고, 이 땅은 동서양을 잇는 항로의 거점이 되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들려왔다. 우리는 거대한 극장처럼 우뚝 솟은 산으로 빨려들어 갈 듯 날고 있었다.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집들은 마치 관객처럼 보였다. 창을 꽉 채운 테이블마운틴(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북쪽에 있는 높이 1,086m의 국립공원)을 보고 깨달았다. '랜드마크'는 이럴 때 쓰는 단어구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세월의 풍파도 가릴 수 없는 이 땅의 이정표. 나는 좌석 아래의 배낭에서 급히 카메라를 꺼냈다. 착륙 전에는 일하지 않는다는 다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깨진 순간이었다.

풍요로운 역사와 포용의 땅

교양 다큐멘터리 PD에게 아프리카는 설렘과 두려움의 땅이다. 아직 방송을 타지 않은 아이템이 넘칠 것이라는 설렘에 누구나 한 번쯤은 아프리카로의 출장을 꿈꾼다. 하지만 그 먼 곳까지 가서 뜻대로 촬영을 마치고 '아프리카와 좀처럼 접점이 없는 한국의 시청자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프로그램을 완성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은 그곳으로 향하는 걸음을 망설이게 한다. 프로그램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PD에게 아프리카는 기출문제도 오답노트도 없는 시험인 셈이다. 나 역시 PD가 된 지 7년이 지나서야 아프리카에 첫발을 딛게 됐다. 그건 KBS1 <걸어서 세계 속으로> 팀에 오면서 스스로와 한 약속 때문이었다. 첫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대륙으로 갈 것. 둘째, 그 대륙을 대표할 만한 큰 나라로 향할 것.

봄이 저물어가던 무렵, 계절을 가로질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착했다. 남반구가 겨울로 접어드는 5월, 입법 수도 케이프타운의 햇살은 한국의 늦봄처럼 따사로웠다. 지중해성기후로 연중 맑고 온화한 케이프타운은 비수기라는 우려가 무색하게 여행과 촬영에 더없이 쾌적한 날씨였다.

촬영을 도와준 것은 날씨만이 아니었다. 삼각대와 카메라를 든 아시아 여성으로서 케이프타운은 따가운 시선이나 불쾌한 시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곳이었다. 그동안 방문했던 세계의 어떤 도시들보다 인종 구성이 다양한 덕분에 이방인인 나도 거리에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었다. 동인도회사 정원에서 만난 다인종 커플, 로벤섬으로 향하던 배에서 만난 동성 부부, 보캅 마을의 말레이시아계 후손들까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 도시에 겹겹이 쌓인 풍요로운 역사와 포용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슬픈 역사, 아름다움이 되어

바다에서 솟은 듯한 케이프산맥이 대서양을 향해 당당히 뻗어있는 케이프타운은 400년 전 이미 국제적인 도시였다.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해안선을 따라 아시아인, 유럽인, 아프리카인이 몰려들었고, 이 땅은 동서양을 잇는 항로의 거점이 되었다.

테이블마운틴을 바라보는 도시의 중심에는 네덜란드인 얀 반 리베크의 동상이 서 있다. 1650년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책임자로 케이프타운에 파견된 그는 아시아행 선박의 보급기지를 만들고자 노예를 들여오기 시작했다. 끌려온 사람들은 낮에는 화려한 도시



김가람 KBS 교양 다큐멘터리 PD

이력사항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KBS에 입사해 <걸어서 세계 속으로>, <환경스페셜>, <생로병사의 비밀> 등을 연출했다. 2022년에는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를 만들고 밤이 되면 깜깜한 헛간에 갇혀야 했다. 그들이 물건처럼 거래되던 장소와 갇혔던 숙소가 반드시 봐야 할 '관광명소의 목록에 있는 건, 그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도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노예 숙소의 촬영을 도와준 홍보 담당자 나즈와는 말했다.

"지금 이 도시가 존재하는 것은 노예였던 우리의 조상들 덕분이에요. 케이프타운의 수많은 명소들이 그분들의 손으로 만들어졌죠."

끌려온 사람들로 꽉 찬 선박의 내부가 묘사된 참혹한 그림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닌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조상들의 피와 땀 덕분에 세계인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도시가 존재한다는 자부심이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 없이 생을 마감했지만, 그들의 삶은 이 도시가 되어 영원히 기억되고 있었다.

케이프타운을 만든 것은 유럽인과 아프리카인만이 아니었다. 영국과 네덜란드풍의 집들이 어깨를 맞댄 알록달록한 보캅 지역에는 동남아시아에서 끌려온 이들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아왈 모스크에는 200여 년 전 인도네시아 이민자가 쓴 코란이 보관되어 있었다. 벽 한쪽에는 16세기에 모스크가 만들어졌을 때의 점토, 돌을 그대로 보존해 놓았는데, 모스크 안내인 이스마일은 강제로 끌려온 조상들이 만든 벽을 볼 때마다 사원에 깃든 아름다운 역사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주민들이 아프리카로 가져온 케이프 말레이 음식을 맛보는 것만큼 즐거웠던 것은 '남아프리카인'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였다. 골목골목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향이 깃든 세계적인 도시의 바탕에는 그들이 자랑스레 내보이는 이 땅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이 있었다.

휴양부터 익스트림 액티비티까지 팔색조 매력의 땅

요즘도 내 여행 강연은 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진으로 시작한다. 스크린에 띄우자마자 탄성이 나오는 테이블마운틴과 드라켄즈버그산맥, 펭귄들이 걷고 있는 해변, 백상아리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다이빙까지. 일상과 다른 무언가를 찾아 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실패할 수 없는 여행지다.

시더버그의 동굴 숙소에서 느꼈던 평화로움도 잊을 수 없다. 바람이 조각한 바위는 액자가 되고, 푸른가 하면 붉은 하늘이 그대로 그림이 되는 곳에서 맑은 정적에 몸을 담갔을 때의 그 기분. 지평선 위로 오직 달과 해만이 마주하고 있던 그 저녁은 지친 출장 사이의 고요한 쉼표가 되어 주었다. 대자연 속의 휴양, 유적 탐방, 세계적인 와인과 미식, 등산, 익스트림 액티비티까지 하나의 대륙을 여행해야 경험할 수 있을 정도의 다채로운 매력들이 한 나라에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었다.

봄날처럼 따스했던 남아프리카 겨울의 기억들을 꺼내다 보니, 테이블마운틴에서 만난 말레이계 무슬림 가족의 얼굴이 떠오른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가 시행되던 신혼 시절 테이블마운틴에 왔었던 노부부는 수십 년이 지나 딸과 함께 다시 그곳을 찾은 터였다. 그들은 매표소에서 예전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았고,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낀다며 활짝 웃어 보였다. 깊은 역사를 가졌지만 여전히 미래를 향해 부지런히 변화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못 본 새에 얼마나 달라질지 궁금하다. 원주민, 이주자, 정복자들의 후손이 광장에서 함께 춤을 추고 넬슨 만델라의 동상이 흐뭇하게 그들을 바라보던 곳. 세상의 모든 곳으로부터 멀지만, 모두를 품고 있던 넉넉한 그 땅이 그립다.



1 케이프타운 도시 야경. 저 멀리 보이는 산이 테이블마운틴이다.
2 케이프타운의 보캅 마을은 유색인종 차별 금지를 환영하는 의미로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집들을 알록달록한 색으로 칠하면서 현재는 관광명소가 됐다.
3 테이블마운틴 암벽 체험을 하고 있는 필자



소니아 벤 살렘 튀니지 공공조달상위위원회 국장 인터뷰

"투명성·효율성 높은 K-전자조달, 아프리카 환경에 최적"

튀니지에 공공조달 시스템(TUNEPS)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소니아 벤 살렘 튀니지 공공조달상위위원회(HAICOP) 국장에 대한 우리나라 대통령 표창 전수식이 지난 6월 현지 대사관에서 진행됐다.

그가 소속된 공공조달상위위원회가 2015년과 2022년에 각각 유엔(UN) 정부 파트너십 지역 대상과 대한민국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지만, 개인 자격으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자국을 넘어 중동·북아프리카(MENA)에 알리는 데 소니아 벤 살렘 국장이 큰 기여를 했다. 튀니지 전자조달 시스템 시범구축 사업은 코이카가 튀니지에 2011~2013년, 2019~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우리나라 전자조달 시스템(KONEPS)을 모델로 진행한 사업이다. 코이카와 튀니지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과 의지를 통해 2019년에 모든 튀니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튀니지 공공조달 시스템(TUNEPS) 사용이 의무화됐다.



Q.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한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튀니지 공공조달상위위원회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저와 제 조국에도 이 성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 기쁩니다.

Q. 먼저 몸담고 있는 공공조달상위위원회는 어떤 조직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공조달상위위원회는 총리실에 소속된 부서로, 튀니지의 공공조달에 대한 일종의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주로 튀니지 공공조달 전략, 법적체계 감사를 비롯해 공공조달을 관리합니다.



코이카와의 협업을 통해 이제 우리는 아프리카 및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전자조달 시스템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Q. 튀니지는 2011년 아프리카 최초로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모델로 TUNEPS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받아들이기까지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2011년 재스민혁명 이후에 공공조달 분야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효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코이카는 전자 공공조달 분야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공행정 혁신을 통해 신뢰할 만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1차 튀니지 전자조달 시스템 시범구축 사업(2011~2013년) 당시 구축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튀니지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출입은행(KEXIM) 등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이카와 진행한 1차 사업이 TUNEPS 성공의 주요한 역할을 한 셈이죠.

코이카와의 협업을 통해 이제 우리는 아프리카 및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전자조달 시스템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식한 요르단이나 카메룬을 포함해 여러 국가로부터 경험 및 노하우 전수에 대한 요청을 받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남남협력**: 두 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지식, 기술, 재원 등을 교환하거나 지역 협력을 추진해 공동의 역량 개발을 추구하는 협력 형태
* **삼각협력**: 두 개 이상의 공여 주체가 촉진국(Facilitator)과 주축국(Pivotal Partner)으로서 협력해 한 개 또는 여러 개 수혜국(Beneficiary)을 지원하는 원조 형태

Q. 튀니지 조달을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중 한국의 조달 시스템에 주목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여러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전자조달과 관련한 파일럿(시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화된 한국의 우수한 전자조달 방식은 종단간 암호화(end-to-end, 메시지를 보내는 곳부터 받는 곳까지 모든 과정에서 암호화된 상태로 전달하는 방식) 역시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관이 2008년부터 한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했습니다.

Q. TUNEPS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을까요?

TUNEPS의 도입 이후 전반적인 부분에서 조달 분야에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조달 절차가 단축됐고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모든 사용자가 무료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전자조달 시스템이라 조달 절차, 결과 등에 대한 추적도 가능합니다.

Q. 튀니지에서 TUNEPS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선 튀니지 국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들 수 있습니다. TUNEPS는 이용자의 모든 요청을 등록하고 이를 실행 계획에 고려합니다. 또 요구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빠르게 취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 노력합니다. 다양한 피드백을 제때 반영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한 TUNEPS 1차 사업과 2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이카는 한국의 시스템을 단순히 이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튀니지 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시스템 설계 부문은 한국 기업이 맡되 기자재 조달과 소프트웨어 개발은 튀니지 기업의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지 업체를 통해 유지 보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코이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해당 시스템이 튀니지에 잘 정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TUNEPS에 등록된 공공기관 수가 2015년에는 14곳이었지만 2022년에 1,441곳으로 1만 193%나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궁금합니다.

계획에서 계약에 이르기까지 공공조달의 거의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TUNEPS는 현재 튀니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TUNEPS는 높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튀니지의 공공조달 분야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Q. 튀니지는 이제 인접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기 원하는 한국형 전자조달 사업 모델의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요르단, 이라크 등이 대표적인데요. 아프리카·중동 지역에 TUNEPS와 같은 전자조달 시스템이 자리 잡는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튀니지는 지난 10여 년간 시스템을 운영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개선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튀니지와 문화, 행정 여건이 비슷한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국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ODA(공적개발원조) 관점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 간 협력을 꾀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동안 코이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나요.

코이카와의 협력은 유익하고 지속적인 공동의 노력이었습니다. 이는 공공조달을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한국과 튀니지 간 소중한 경험의 공유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전자조달 시스템이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튀니지와의 협력에 대해 한국 정부와 코이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와 같은 노력이 전 세계에 함께 확산하기를 희망합니다.

케냐 중부 건조지역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삶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가뭄에 핀 그녀들의 웃음 소리

지난 3월 아프리카에 우기가 시작된 이후 갑작스런 엘리뇨의 영향으로 케냐 등 동부아프리카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100만 달러(약 13억 5,000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근 사정은 이렇지만, 홍수 이전의 케냐는 혹독한 가뭄을 겪던 지역이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시작된 가뭄이 3년간 이어졌다.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던 지역에서 그나마 있던 농작물과, 가축이 먹을 풀마저 모두 말라버렸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가뭄으로 2,3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극심한 식량 불안을 겪었다. 생활고는 더욱 심각해졌다. 케냐는 국토 면적의 89%가 연간 강수량이 850mm 이하인 건조지역이다. 가뭄으로 이 지역 인구의 27%(440만 명)가 심각한 식량위기에 처했고 가축의 5%(261만 마리)가 폐사했다.

코이카는 가뭄이 시작된 2020년부터 케냐에서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여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케냐 정부,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월드비전 등이 웨스트포콧, 라이키피아, 키투이, 이시올로 등 4개 주에서 여성 농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왔다. 여성들에게 변화된 기후 환경에 맞는 농업과 목축업 기술을 전수해 식량을 확보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리더십 함양 교육, 자조 조직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약 90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으로 아프리카 여성 2,964명의 삶이 바뀌었다.


1

"오랜만에 가득 찬 곡물 창고… 올해 저는 행복한 농부였습니다"

키투이주에 사는 아비아 문야오(Avia Munyao·46) 씨는 세 아이의 엄마다. 옥수수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 학비를 대고 생계를 꾸렸지만 수익은 늘 일정하지 않았다. 2020년 팬데믹과 가뭄이 동시에 찾아오면서 살림은 더 어려워졌다. 2021년 코이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바뀐 기후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법, 염소를 돌보는 법 등을 가르쳐주는 수업을 들었다.

가뭄에 강한 농작물이라는 수수부터 새로 심었다. 수수는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쑥쑥 잘 자랐다. 작년엔 총 20kg의 수수를 수확했다. 1.3kg은 다른 농부들에게 종자용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양조장에 팔기 위해 보관 중이다. 또 녹두 90kg을 수확해 5,850달러(약 775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옥수수도 다시 재배 중이다. 이번엔 코이카 프로그램에서 배운 '자이피트' 기술을 적용해서 작물을 심었다. 전통적인 방법보다 구덩이를 깊게 파는 방식으로, 건조지역에서도 물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후 스마트 농법이다.

"이번 시즌에 저는 정말 행복한 농부였습니다. 옥수수가 이렇게 많이 수확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4자루를 수확해서 가격이 적당히 오르면 판매할 거예요."

최근엔 그동안 거둔 수익금으로 농지를 더 매입하고, 염소 10마리도 추가로 구입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고작 4마리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총 35마리를 키우고 있다. 코이카 프로그램에서 배운 대로 염소들이 아픈 곳은 없는지 매일 살피고, 예방 접종도 시킨다. 염소들은 매일 우유를 제공한다. 그녀는 아침마다 8리터의 우유를 짜서 2리터는 가족들과 마시고 나머지 6리터는 판매한다. 지난해 여름에는 잘 자란 염소 8마리를 시장에 팔아 한국 돈으로 약 86만 7,000원을 벌었다.

"염소는 신이 준 선물이나 다름없어요. 초기 자본도 별로 들지 않고, 수익은 높거든요. 농촌의 여성들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큰 버팀목이 됩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그녀는 가계를 운영하고 세 자녀의 학비도 지불한다.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면서 생활 반경도 넓어졌다. 마을 자조 조직 대표, 지역 교회협의회 대표집사 등 명함이 벌써 여러 개다. "키투이주 가뭄은 심각했지만 가뭄을 극복하면서 제 생활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나아졌습니다. 모두 새로운 것을 배운 덕분입니다."


2

"더 많은 청년 리더를 키우고 싶습니다"

라이키피아주에 사는 줄리아 냠부라 와치라(Julia Nyambura Wachira·30) 씨는 29세에 카프론 지역 주민 자조 조직의 대표를 맡았다. 앞서 그녀는 코이카가 제공하는 리더십, 금융, 마케팅, 농장과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지식을 쌓았다.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기회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마을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젊은 리더를 두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코이카 교육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참여한 그녀가 최종 리더로 뽑혔다. 자조 조직의 회원은 총 17명. 이들은 주기적으로 모여 양계, 감자 종자 생산, 약초 재배, 대출 서비스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보를 나눈다.

그녀는 자조 조직 대표를 맡으면서 지역 정부와도 직접 소통하게 됐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정부에 전한다. 지난해에는 라이키피아 북부 지역 선거구발전기금위원회 청년 대



3


4

표, 케냐 청년연합 무코고도 동부지구 청년 리더로 선출됐다. 이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지역사회 내에서의 갈등 이슈, 자금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지역 주민과 청년을 대표해 목소리를 낸다.

와치라 씨는 앞으로 마을에 씨감자를 판매하는 매장을 더 짓고, 더 많은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자신과 같은 적극적인 청년 리더를 더 많이 양성하겠다는 꿈도 갖게 됐다.

"리더십, 농업, 금융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교육에 참여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리더로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더 많은 동료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아이들에게 대학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집도 지을 겁니다"

셀리나 로론(Selina Roron·50) 씨는 웨스트포콧주에서 아들 4명과 딸 6명을 키우고 있다. 로론 씨의 하루는 바쁘다. 닭 15마리와 소 2마리, 송아지 2마리를 키우면서 2만여㎡ 규모의 땅에서 농사도 짓는다. 매일 우유 5리터를 인근 학교에 공급한다. 지역 교회와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케렐 중등학교에서 회계 담당자로도 일하고 있다.

평범한 여성 농부이자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2022년 동료 29명과 함께 코이카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았다. 회계도 이때 배워 가계 경제도 계획성 있게 꾸리고 있다. 농사와 우유 판매로 얻은 수익으로 아이들 학비를 내고, 남은 돈은 저축한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경작지 면적을 4만여㎡로 늘리고, 비료와 종자를 구매해 농사 규모를 확대했다.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대학 교육을 시키고, 우리 가족을 위한 새로운 집도 지을 거예요."

남편은 로론 씨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코이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초기에 남편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케냐의 가부장 문화로 인해 남편들이 아내의 바깥 활동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 함께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을 들었다. 이제 남편은 로론 씨가 외부 일정이 있을 때면 아이들을 돌보고 가사일도 거든다.

"여전히 집안일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남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면 장기적으로 문화가 바뀌고, 여성의 삶도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프로젝트는 올해 마무리된다. 남은 기간 코이카는 사업 종료 후에도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정부와 협력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임장희 코이카 케냐사무소장은 "후속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예산을 확보해 현재 3,000명 규모인 수혜 주민 규모를 1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업 마지막 단계까지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 아비아 문야오
2 줄리아 남부라 와치라
3 케냐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양봉키트 기증식
4 기후 스마트 농법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을 보여주는 케냐 부부
5 셀리나 로론

전기장판부터 아기 울음소리, 하쿠나 마타타까지

아프리카 '좀 아는' 코이카 직원들이 말하는 '진짜 아프리카'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아프리카는 실제 아프리카와 얼마나 다를까? 아프리카 근무 경력이 있는 코이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들이 경험한 생생한 아프리카를 한 보따리 풀어놨다. 유튜브 기획 콘텐츠로 제작된, 통통 튀고 흥미로운 꿀팁 정보 가득한 5인의 고품격 아프리카 토크쇼는 코이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만날 수 있다.

사회 박다슬 홍보관(홍보실), 에티오피아 근무
패널 이지현 과장(분쟁취약지원팀), 카메룬 근무
김동립 팀장(아프리카1팀), 르완다·세네갈 근무
박서연 전임(아프리카1팀), 탄자니아 근무
이규홍 과장(동남아시아1팀), 세네갈·카메룬·이집트 근무



1

박다슬 홍보관 각자 거주했던 국가나 지역 중 '여기는 내가 꼭 알려주고 싶다' 하는 곳이 있나요?

이규홍 과장 저는 카메룬에서 4년간, 세네갈에서 3년간 지냈어요. 이집트는 코이카 입사 전에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다녀왔고요. 개인적으로 세네갈이 가장 날씨가 좋고 바닷가가 있어서 가족들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서단인데, 바닷가에 접하면서 북쪽으로 가면 사하라사막 바로 밑이라 사막기후도 있어요. 다양한 기후가 있어 흥미롭죠. 세네갈 핑크호수도 유명하고요.

김동립 팀장 저는 르완다에서 2012년부터 3년 동안 근무했는데, 르완다에 들어온 한국 사람들이 은퇴 후 살기 괜찮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고지대에 속해 일 년 내내 기온 차가 별로 없어 생활하기 좋거든요. 또 사람들이 근면하고 환경이 청결한 편이기도 해요.

박서연 전임 휴양도시나 여행지 측면에서 볼 때 탄자니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과 들판, 바다 같은 자연경관이 좋았어요. 저는 다르에스살람이라는 항구도시에서 지냈는데, 거기도 바다가 아주 예쁘고 살기 좋았습니다.

박다슬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가졌던 편견이나 환상이 깨진 적도 있었나요?

박서연 저는 아프리카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초원과 라이언킹, 하쿠나 마타타(문제없다'라는 뜻의 스와힐리어) 같은 거였어요. 막상 갔더니 정말 하쿠나 마타타가 많더라고요. 잔지바르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려고 장비를 빌린 적이 있는데, 직원에게 오리발을 챙겨달라고 했더니 "하쿠나 마타타~"라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결국 맨발로 스노클링을 했어요. 거기서는 "뭐 어때? 우리는 그냥 물속에서 노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근심 걱정을 덜 하고 낙천적이구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김동립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말들이 있지 않아요? 르완다에서는 '은타 키바조'(문제없다'라는 뜻의 키냐르완다어)라고 하고, 세네갈에서는 '인샬라'('신의 뜻대로'라



는 뜻의 아랍어)라고 하더라고요.

박다슬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얘기하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프리카가 늘 더운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추워요. 제가 에티오피아로 파견가기 전에 먼저 계시던 분이 "꼭 전기장판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셨어요.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전기장판은 꼭 있어야겠더라고요. 일교차가 심해 밤이나 아침에 꽤 춥습니다.

'하쿠나 마타타'면 OK,
아프리카에서 느낀 긍정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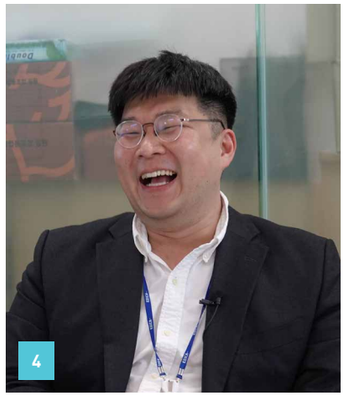


이지현 과장 저는 코이카에 입사한 뒤 아프리카 문화를 처음 접했어요. 그전까지는 아프리카의 국가별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하다가 코이카에 들어와 직접 경험하면서 '아프리카 안에서도 나라마다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대륙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 아프리카 문화를 접하기 전과 후의 큰 차이였습니다. 저는 북아프리카 출장으로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카메룬을 다녀왔어요. 이 세 나라가 너무 다른 곳들인데, 이 외 다른 나라들은 또 얼마나 세세하게 다르겠어요? 아프리카 대륙이 품고 있는 많은 국가 또는 종족들 각각의 개성과 특징이 참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립 아프리카 50여 개 나라마다 아이덴티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지현 과장님 말씀처럼 바로 옆에 있는 나라도 비슷한 것을 공유하면서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 중국과 붙어 있지만 다른 것처럼요.

이규홍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기관이니까 아프리카는 '우리(코이카 직원)를 다 반겨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막상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거꾸로였던 거죠. 공급자(공여기관)는 코이카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많고 수요자는 딱 하나니까요. 공급자 사이에 경쟁 관계가 형성되는 만큼 '코이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그들이 반겨주겠구나',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박다슬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지내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 거 같아요. 저는 르완다에서 우리 차가 앞차와 접촉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보험사 부르고 절차가 복잡했을 텐데, 그때 우리 차 기사님이 "Are you OK?"라며 앞차 운전자와 악수하면서 금방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기사님이 "큰 문제없고 안 다쳤으면 그냥 가는 거야"라고 해서 제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여기저기서 아기 울음소리 들리면
아프리카 온 걸 실감해

이지현 저도 운전면허는 한국에서 땄지만 카메룬에서 본격적으로 운전을 시작해서 그런지 그런 문화에 더 익숙한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도 차가 긁히면 그냥 "차 긁혔네" 하고 블랙박스 확인 없이 넘어가기도 해요.

김동립 아프리카에는 아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젊은 아프리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광경을 실제로 보고 듣는 거죠. 아프리카행 비행기에도 아기가 진짜 많이 타는데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뜬눈으로 밤을 보낸 적도 많아요. 아프리카행 비행기 탈 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또 아프리카 가는구나!' 하고 실감하죠.

이규홍 특히 아이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죠.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너무 뛰는 바람에 아랫집에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더니, 그걸 왜 미안해하냐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지현 실수에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음 같은 것도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편이죠.
저는 카메룬에서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아프리카가 동물병원이 의외로 잘 갖춰져 있어요. 현지에서 필요한 백신접종도 잘 받고 고양이 중성화수술도 했어요.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요.

박다슬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싶은 아프리카 문화가 있나요?

박서연 탄자니아에서는 스와힐리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스와힐리어를 조금 배웠어요. 처음에는 보통 인사말을 배우잖아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 이름은 ○○입니다' 이런 것을 상상했는데, 탄자니아에서 처음 배운 표현은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요즘 어떠니?', '너희 가족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등이죠. 실제 탄자니아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를 정말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전화를 걸면 저희 같은 경우 "여보세요. 저 ○○인데요. ○○○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안녕하세요. 지금 잘 지내나요? 가족은 어때요?" 한 1~2분 정도 안부를 물은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는 식이에요.



김동립 맞아요. 한국식 업무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는 건 피해야 하죠.

박서연 처음엔 양 끝에 작은 따옴표 넣기 생각했는데, 이 대화 방식은 업무를 할 때 상대방과 '라포(사람 사이에 생기는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어색함을 깨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규홍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도 '좋은 관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대륙과 하는 최초의 정상급 회의인데, 각국 정상들과 서로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것이 향후 아프리카와 진행할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코이카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코이카 유튜브 채널
영상 바로가기

1 고품격 아프리카 토크쇼 출연자 단체사진 (가운데가 박다슬 홍보관)
2 박서연 전임
3 김동립 팀장
4 이규홍 과장
5 이지현 과장



1

탄자니아 청년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사업

‘뜨는 기술’ 배워 꿈 찾은 탄자니아 청년들

아프리카의 대표적 농업국가인 탄자니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수송, 에너지, 관광, IT 부문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부터다. 탄자니아 정부는 약 2,500km에 달하는 표준궤도철도(SGR) 노선을 건설하고, 전력 등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줄리어스 니에레레 수력발전소(JHNPP)를 건설했다. 또 일론 머스크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통신망 스타링크의 서비스 개시 등을 통해 탄자니아는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아프리카의 영문 일간지 『더시티즌(The Citizen)』은 지난해 미국, EU, 중국의 경제 불황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전망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의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산업화의 기회 속에 탄자니아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산업 수요에 맞는 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총 인구의 80%가 청년으로 구성된 젊은 국가이지만 일자리의 75%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이고, 산업화가 집중되는 주요 도시 지역의 청년실업률이 28.8%에 달하는 만큼 탄자니아에는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 기술을 갖춘 청년 인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탄자니아 정부가 5개년 개발계획의 주요 전략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직업능력개발(Skills Development)을 선정하고 직업훈련센터(VETA 센터)의 확대 구축과 중고급 수준의 청년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코이카는 탄자니아의 높은 실업률과 청소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올해까지 ‘탄자니아 청년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530만 달러(약 60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탄자니아 현지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교육 훈련과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취업률과 소득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사업을 통해 총 약 4,300명이 용접, 산업배관, 가정배관, 메카트로닉스* 등의 기술 훈련을 받았고 그중 630명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했다.

> 코이카는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독일 원조기관 GIZ와 손을 잡았다.

직업교육 훈련도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발맞춘다

코이카는 탄자니아의 청년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 ‘적합한 직업교육 훈련 제공’과 ‘훈련생의 창업 지원’을 꼽았다. 기존에도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졸업생들이 국내외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훈련 기자재 교체, 기술 교사 훈련 및 커리큘럼 개정 등 훈련 환경의 개선이 필요했다.

코이카는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직업교육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독일 국제협력공사(GIZ)와 손을 잡았다.

GIZ는 아프리카 6개국에서 ▲현지 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직업능력 개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4D(Employment and Skills for Development in Africa)’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코이카는 GIZ의 E4D 사업에 재정을 지원해 탄자니아 도도마, 만야라, 린디, 다르에스살

*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기계공학(Mechanics)과 전자공학(Electronics)을 통합한 분야. 기계의 제어에 전자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대표적인 제품으로 전자계산기와 산업용 로봇이 있음



2



3

람 등 4개 지역 VETA센터에서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용접, 산업배관, 가정배관,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대한 훈련 기자재 제공과 커리큘럼 개편 및 훈련 제공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기존 E4D 사업에서 개발된 다양한 수업 커리큘럼을 민간 부문과 산업체로부터 검증받아 직무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했다. 더불어 취업 전 인턴십의 기회도 다양하게 제공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술 훈련을 받은 청년은 약 4,300명이며 이 중에서 3,435명이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았고 결과적으로 약 1,200명의 청년이 코이카 사업 참여 전보다 수입이 10% 정도 증가한 더 나은 일자리를 갖게 됐다.

VETA센터 중 도도마 지역을 제외한 3개 지역 센터는 2012년 EDCF(대외경제정책기금)에서 '직업훈련센터 건립 사업' 유상원조를 통해 지원한 훈련 시설로, 무상-유상 원조 간 연계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훈련에서 직업으로'…
고용 촉진, 민관 협력으로 해결

지역별 VETA센터에서 제공한 직업기술 훈련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기여에 나선 코이카는 독일 원조기관 GIZ와의 협력과는 별도로 졸업생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훈련생을 대상으로 창업을 위한 기자재와 멘토링을 지원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630명 중 창업에 성공한 졸업생은 171명이며 이들을 통해 용접·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67개의 업체(Micro Industry)가 신규 등록됐다.

2023년 만야라 VETA센터 졸업 후 창업에 성공한 주마 바하티(Juma Bahati) 외 4명은 코이카에서 제공한 직업기술 훈련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만야라 웨딩 그룹(Manyara Wedding Group)'이라는 이름으로 창업해서 비즈니스 시작 3주 만에 350만 탄자니아실링(약 1,380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현재까지도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며 다른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코이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용접·배관 서비스 전문기업 미마코 바바티(Mimaco Babati)를 설립한 제임스 제럴드 차미(James Gerald Chami)는 "회사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해 준 코이카 덕분에 저와 회사 직원들은 늘 즐겁게 일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이카는 이러한 사업 성공 배경에는 파트너십이 있었다고 말한다. 독일 선진 공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고도화된 직업기술 훈련 제공, 우리 정부의 유상원조기관인 EDCF 지원 사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탄자니아 내 한국 정부의 지원 효과성 및 가시성 제고, 탄자니아 선도 산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우수 졸업생들에게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를 일정 기간 지원하고 멘토링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니아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선순환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가까운 미래에 정부에서도 코이카의 창업 모델과 같이 청년들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코이카는 앞으로 탄자니아 주요 지역에 직업훈련센터를 구축하고, 산업 수요에 맞는 중고급 수준의 직업기술 훈련을 제공해 산학협력에 근거한 청년인구의 실질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

1 만야라 VETA센터의 용접기술 교육 현장
2 코이카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기술 이론 교육 현장
3 만야라 VETA센터 전경
4 코이카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용접 및 배관 서비스 전문기업 '미마코 바바티' 직원들



세네갈 잠냐죠 고등기술전문대학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스타트업에 도전하세요, 지원해드립니다”

프롭테크(PropTech) 스타트업 ‘직방’은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2,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했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테크(Technology)를 합성한 말로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등 관련 절차를 디지털 서비스하는 산업을 말한다. 창업 10여 년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넘겼으며,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을 일컫는 유니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네갈판 직방’ 카니모(Kanimmo)는 현지 부동산 중개를 인터넷 기반으로 자동화한 플랫폼 기업이다. 부동산 중개인 업무의 약 85%를 자동화해 관리 운영을 최적화한 게 특징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만족해하고 있다.

카니모는 코이카가 세네갈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네갈 잠냐죠 고등기술전문대학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거친 스타트업이다. 코이카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750만 달러(약 100억 원)를 투입해 세네갈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생태계를 확산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네갈 청년에게 기업가정신을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동쪽으로 약 50km.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가면 신도시 잠냐죠가 나온다. 지식산업단지가 있는 곳이다. 세네갈 정부는 이곳에 ‘잠냐죠 고등기술전문대학(ISEPDD)’을 설립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ISEPDD는 학교에서의 직업 교육과 별도 트레이닝 센터에서의 인턴십이 결합된 이중 교육 시스템을 통해 세네갈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코이카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과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지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총 380㎡ 넓이에 3D프린터 등 디지털 제작을 위한 다양한 기자재로 구축된 제작 공간(Working Space), 최대 30명의 교육생이 협의하고 소통하는 협의 공간(Cooperation Space), 아이디어 창출과 개인 작업을 위한 창의 공간(Creativity Space)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연규황 PM(Project Manager)은 “아직 세네갈에선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했다”라며 “스타트업 지원법이 수립돼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적, 법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 개선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네갈 현지에 메이커스페이스가 구축된 사례는 드물다. 이에 코이카는 세네갈 청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공유하는 메이커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아이디어가 발전해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연규황 PM은 “이번 프로젝트는 세네갈에서 장기적, 지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네갈에 창업 생태계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예비창업자 육성으로 생태계 강화

세네갈은 창업 생태계 규모에 비해 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프리인큐베이션(pre-incubation) 기관이 부족하다. 성공적인 기술 창업을 위해서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 아이디어 기획, 사업 모델 구축 등의 기본기를 교육할 기관이 필요하다. 세네갈에는 창업 생태계에서 이 부문에 해당하는 프리인큐베이션 지원이 열악한 편이다.

코이카 창업 인큐베이팅을 거친 세네갈 주요 스타트업

기업명	사업 내용
Guerte Rewmi	세네갈 농가의 땅콩으로 땅콩버터 등 식품을 생산하는 농식품 스타트업
Kanimmo	우리나라 ‘직방’이나 ‘오늘의 집’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 플랫폼 운영
WaW Tech	세차장이 있는 주유소에서 빗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과 유지보수를 위한 플랫폼 판매
WeTrust NFT	코인 거래를 활용해 아프리카 현지 농부들의 투자 지원 서비스 구축
STEMtastic	유아 교육 플랫폼 운영

이번 사업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타프시르 바바카르 은도이(Tafsir Babacar Ndoye)는 “세네갈 정부는 10년 전에 리서치 이노베이션 디파트먼트(Research Innovation Department)를 설립해 지적재산, 기술이전, 혁신 등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 스타트업 관련 정책 입안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통합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만들고 실행하는 담당 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네갈 정부와 코이카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조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코이카는 기술 스타트업의 효과적인 인큐베이션을 위해 기술적인 목표와 상업적인 목표 달성을 돕는 전문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현지 액셀러레이터나 투자자들과 연계하는 매칭 펀드를 운영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창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업이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수립한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장성과 기술성 검증 컨설팅을 지원한다. 창업자와 투자자, 예비창업자와 성공한 창업자, 창업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세네갈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코이카는 “세네갈 창업 생태계의 제도적 지원과 법적 지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의사 결정자들의 창업 전반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육된 멘토는 물론 세네갈 창업 인스트럭터와 비즈니스 코치, 기술 코치들에 대한 세미나 개최로 창업 지원 수준을 향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1 세네갈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및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교육 수료증 취득
2 세네갈 창업 인큐베이팅 및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업 발표 현장
3,4 혁신적인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테스트하고 검증하고자 하는 기업가를 위한 사전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세션

아프리카 진출한 이에녹 데이터메이커 대표·신민용 바딧 대표

청년 기업이 선택한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지구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기회의 땅'이다. 이는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에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로 아프리카에 진출한 이에녹(33) 데이터메이커 대표와 신민용(35) 바딧 대표는 "우수한 젊은 인력이 많고 잠재력이 큰 시장인 아프리카는 무한한 기회가 있는 땅"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프리카 인구 증가, IT 기업 진출에 큰 도움"
이에녹 데이터메이커 대표

가나의 우수한 인적 인프라… 글로벌 대기업도 선호

2018년 설립한 데이터메이커는 AI의 학습용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라벨링하고 가공하는 기업이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주행 영상에서 차량의 위치와 종류를 데이터로 입력하는 식으로 일종의 AI용 교과서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녹 데이터메이커 대표는 2020년 아프리카 가나로 진출해 데이터 랩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미 아프리카와 인연이 있다. 중고생 때 선교사인 부모님과 5년간 가나에 거주했었다. 이 경험은 이 대표가 데이터 라벨링 사업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되었다.

"2018년 창업 초기 아이템은 AI를 활용한 주차면 관독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주차면을 확인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집된 수만 장의 이미지에 직접 '주차 불가', '주차 가능'을 라벨링해야 하는데, 그 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가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나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느꼈던 가나 현지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

데이터 라벨링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 인적 인프라를 구축한다. 가나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기에 글로벌 기업이 선호하는 편이다. 덕분에 가나는 다수 대기업의 수주를 받아 챗GPT, 제미나이와 같은 LLM(대형 언어 모델, Large Language Model)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제반 작업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율주행 인공기능 개발에 필요한 라이다 센서 데이터 라벨링과 같은 고난도 작업 또한 진행하고 있다.



2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인식 바꿔야

결과적으로 가나 진출은 성공적이었다. 현재 가나 자회사에서만 현지인 18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해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메이커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데이터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전달받고, 라벨링 작업 및 검수를 진행합니다. 가나 진출 6년 차가 된 현재는 전반적인 프로젝트 영업 및 운영까지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가나 인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객사가 가나에서의 작업을 선택하는 비중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메이커는 현지 인력 교육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회사의 여성 청소부를 '라벨러'로 전직시켜 성공했다"며 "훈련비를 제공하며 현지 인력 양성에 힘을 쏟은 보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프리카의 인구가 늘고 있는 것, 특히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간에서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아프리카는 시골을 제외하고는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매우 높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도 대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사업 아이템인 경우, 가입자 확보 등에 아프리카의 많은 인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이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많이 진출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얻는 점도 많다는 것. 가격 경쟁력으로만 덜컥 진출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젊은 기업가가 보는 아프리카는 다양한 성장 동력을 품고 있는 '기회의 땅'이다.



"아프리카는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
신민용 바딧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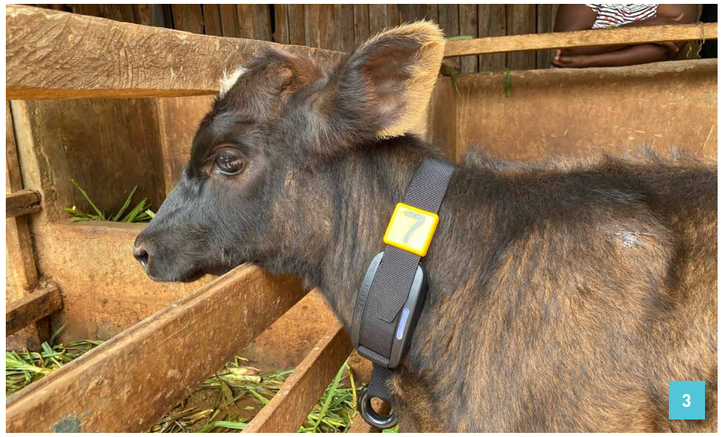
케냐에서도 통한 K-축산 솔루션

바딧은 자사가 개발한 '파머스핸즈(AI에 기

반을 둔 미세한 움직임 분석 기술)'를 이용해 송아지의 미세한 움직임을 분석, 폐사의 약 90%를 차지하는 소화·호흡기 질병을 조기 감지하는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 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사업' 과제 수행에서 송아지 256마리에 파머스핸즈를 도입해 평균 13%에 달하던 송아지 폐사율을 약 1%로 낮췄다. 이러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딧은 지난해 케냐에 진출했다.

케냐는 세계적인 축산 대국이다. 축산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축산연구소(ILRI)'가 케냐에 있으며 약 2,000만 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육하는 소가 350만 마리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다. 바딧의 축산 솔루션은 케냐에서도 통했다.

"13개 농가를 지원하며 평균 폐사율을 32.6%에서 0.6%로 낮췄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프리카에서 제대로 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케냐는 소에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가축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가진 만큼 우리 기술이 농가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3

아프리카 발전에 한국의 역할 기대

아프리카 진출에 어려움은 없었을까. 신민용 바딧 대표는 "현지 문화와 축산 환경이 너무 다양한 것이 생소했다"고 말했다.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시간 개념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던 것이 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더 잘살고 싶다'는 인류 공통의 욕구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이 제한된 자원과 능력으로 현지에서 처음 파트너를 구하고, 좀 더 나아가 현지 국가의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려운데, 코이카 케냐사무소를 통해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낙농협동조합을 소개받았습니다."

이처럼 코이카의 매칭으로 낙농협동조합과 만족스럽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발굴했다. 덕분에 신 대표는 케냐의 다양한 환경에서 파머스핸즈를 접목해 보며 실제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도움을 주었을 때 가장 효과가 잘 나타나는지 알 수 있었다.

신 대표는 아프리카에 대해 "먼 시장이긴 하지만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발전에 있어 한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겼고 신뢰도 잘 형성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창적인 기술력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잠재력을 확인하고 널리 보급하는 기회로 꼭 아프리카 진출을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제도적인 개발 과정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면 큰 국가 기반 사업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이 갖춰져 있는 시장에 비해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더욱 크다는 점이 아프리카 시장의 큰 매력입니다."



4

1 데이터메이커_사업 협력 조인식 현장
2 데이터메이커_이에녹 대표의 직원 대상 교육
3 바딧_파머스핸즈를 착용한 소
4 바딧_농가 집체 교육 현장

'한국전쟁 참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촌을 가다

"잊지 않고 찾아와 준 한국이 참 고맙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느덧 70여 년이 흘렀지만 한국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여전히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코이카도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낸 참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에티오피아다. 에티오피아는 당시 보병 1개 대대 규모의 군대를 파견해 현재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적근산에서 큰 활약을 펼쳤다. 코이카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참전용사들과 그 후손들이 모여 사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촌에 초등학교를 짓는 등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참전용사와 후손들은 이러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과거의 희생에 보답하는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한국에 고마움을 전해왔다.



1

참전용사
벨라쵸 암네샤와
(Belachew Ameneshawa)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벨라쵸 암네샤와이고 1934년에 태어났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현재 한국전참전용사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Q.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한국으로 가는 길은 어땠나요?

저는 전쟁 기간에 두 차례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건 1952년 3월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쉽지도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군함을 타고 3주간의 긴 여정 끝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였어요. 모든 것이 파괴돼 있었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는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Q. 전쟁 당시가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우리 부대는 미국의 32연대에 배속돼 화천군 지역의 최전방에 배치됐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Q. 한국전쟁 이후 에티오피아로 돌아와서는 어떻게 지냈나요?

에티오피아로 돌아와 군대에서 몇 년 더 복무했습니다. 이후 기술교육원에 진학해 전기 전자 분야를 4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학위를 받고 졸업한 뒤에는 에티오피아항공에 취직했고요. 기술서비스 부서 라디오 부문에서 정비공으로 27년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그 사이 결혼을 했고 네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장성했고 저는 현재 퇴직자의 삶을 살면서 한국전참전용사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참전용사들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참전용사들에게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병원에서 받은 의료 지원은 참전용사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건강 문제가 많아요. 이런 의료 지원이 없었다면 참전용사들은 의사 진료, 연구실 방문, 약 처방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현금 지원도 중요합니다. 현재 에티오피아의 치솟는 물가를 생각하면 현금 지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참전용사들의 퇴직금은 엄청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Q. 한국의 지원 사업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참전기념비 설립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의료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디스아바바에 한국 병원의 운영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Q. 참전용사촌 후손들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이뤄지면 좋을까요?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기술 분야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누구보다도 이걸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한국인들은 아이들을 학교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 교육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 한국이 아주 잘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로서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회의할 때마다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한국인들이 잊지 않고 우리 참전용사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한국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전용사 후손
무스파 카마르(Musefa Kemal)

Q.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무스파 카마르입니다. 참전용사의 아들이죠. 현재 참전용사협회 안에 있는 박물관에서 근무합니다.



2

Q. 참전용사촌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리안 빌리지'라고도 불리는 참전용사촌은 1951년에 지어졌습니다. 참전용사촌이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고, 에티오피아로 복귀했을 때도 그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이곳이 코리안 빌리지라 불리게 된 배경입니다. 이후 참전용사들이 여기서 집을 짓고 동네에서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이곳에서 결혼하고 사셨습니다. 제 누나도 이곳에서 태어났고요.

Q. 현재 참전용사촌에는 몇 명 정도가 살고 있나요?

참전용사촌 인구는 대략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입니다.

Q.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참전용사의 후손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으니까요. 집에는 아버지가 군에서 받은 훈장과 한국 역사책도 많았습니다.



Q. 참전용사 후손으로 자라면서 특별히 지원받은 부분이 있나요?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코이카뿐만 아니라 여러 한국 단체가 우리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은 400명 넘는 참전용사촌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딸도 한국 단체를 통해 장학금을 받아 현재 아디스아바바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고 고마움이 컸던 한국의 지원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코이카가 직업훈련학교(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School, TVET)에서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은또또 직업훈련학교 학생 120명이 세 차례에 걸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생들은 지금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5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Q.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지원을 더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지원은 교육입니다. LG-KOICA 직업훈련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받은 후 많은 학생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많은 학생들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창업을 하려고 해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Q. 히브렛피레초등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설립된 이후 참전용사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물론 잘 알고 있어요. 그곳은 참전용사촌 어린이들이 쉽게 등교할 수 있도록 코이카가 건립한 학교로, 많은 참전용사 후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참전용사 후손이 아닌 부모들도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히브렛피레초등학교에는 한국에서 온 봉사단원들이 아이들에게 IT나 체육 등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나온 졸업생들이 커서 성공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Q. 한국인들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에 대해 어떤 점을 더 알았으면 하나요?

나이가 많은 한국인들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를 잘 모릅니다. 저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에티오피아와 한국이 피로 묶인 국가란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쟁 막사 근처에서 한국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습격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민간인이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에티오피아 군인 한 명이 그를 도우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공격을 당해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를 흘리며 하나가 되었고 땅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관계를 피로 묶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Q. 한국전쟁의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코이카에 한말씀 해주세요.

코이카는 참전용사와 그 후손뿐만 아니라 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식수 지원,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를 잊지 않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게 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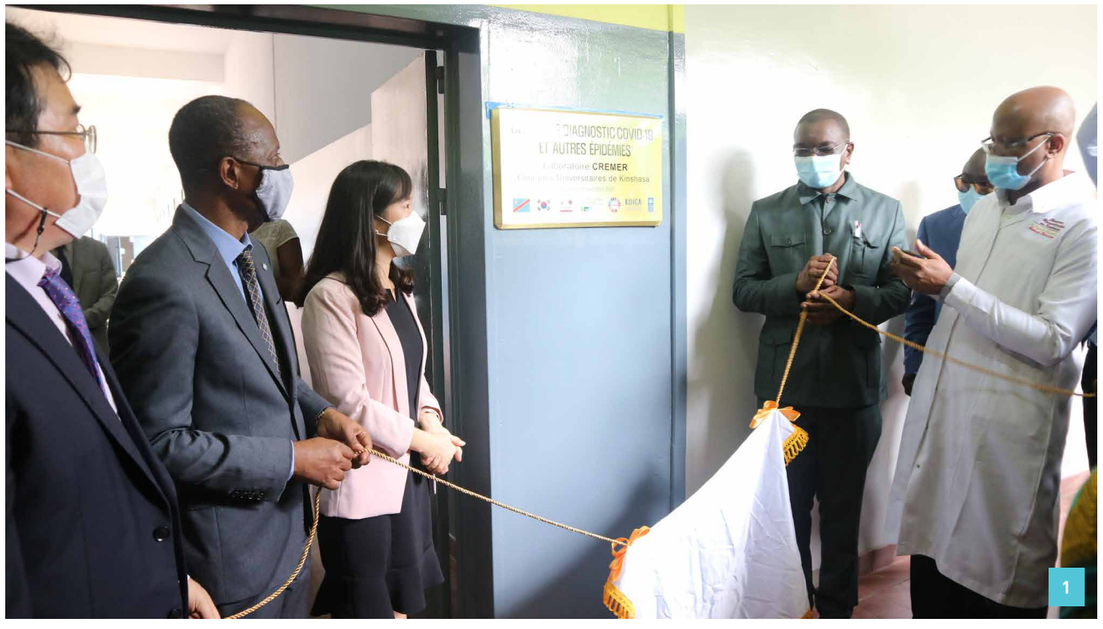
코이카 유튜브 채널
영상 바로가기

1 참전용사 벨라쵸 암네샤와
2 참전용사 후손 무스파 카마르

박준우 UNDP 콩고민주공화국 국가사무소 현장사무소장 인터뷰

아프리카 10년차가 말하는 ODA 전문가의 역할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은 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심장'으로 불린다. 박준우 소장은 이곳에서 유엔개발계획(UNDP) DR콩고 국가사무소 현장사무소장을 맡고 있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으로 시작해 국제기구 정직원이 된 그는 아프리카에서 10년을 보낸 ODA(공적개발원조) 전문가다. 아프리카에서 10년, 국제기구 직원으로 10년을 보낸 박준우 소장이 바라본 DR콩고, 그리고 ODA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들어본다.



1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산림 보전,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산림 탄소 저장량 증진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저감 활동)는 파리협정 5조2항에 명시된 기후변화대응 프레임워크다.
DR콩고에는 아마존 다음으로 가장 큰 열대우림이 있는 콩고분지의 약 60%가 분포해 있다.
박준우 유엔개발계획(UNDP) DR콩고 국가사무소 현장사무소장은 이 지역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REDD+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코이카 역시 UNDP 현장에서의 이행 경험을 바탕으로, 오우엘레주 대상 REDD+ 사업을 지원 중이다.

Q.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국제기구인 UNDP 정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이카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당시 경험이 ODA 전문가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청소년 시절부터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때 그 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현장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코이카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당시엔 몰랐는데 이제 와 돌아보니, 코이카 봉사단원 활동은 국제개발협력의 시작과 끝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던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현장에서 마을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며 사업 수요를 파악, 발굴, 발전, 수행하는 사업 사이클 전반을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을 거치며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석사과정에 진학해서 개발학을 공부했습니다. 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이라는 세부 분야를 정한 데에도 봉사단원 경험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면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이행 지원(Operations) 분야의 재무, 인사, 법무, 사업 질적 관리 등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어느덧 저도 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지 10여 년이 지났네요.



2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시절, 마을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했던 순간의 보람은 현재의 그를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전기도, 물도, 길도 없는 곳에서 그야말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척박한 환경에서도 서로 응원하며 공부하고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프리카는 종족과 자원, 외부의 개입 등 다양한 이유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난다. 해결책 없는 문제가 아직도 너무나 많지만, 박준우 소장은 봉사단원 시절 느꼈던 까닭 모를 벅차오름을 지금도 현장을 누비며 변함없이 느낀다.

Q. 코이카 해외봉사단을 비롯해 경력사다리 프로그램, ODA 전문가 제도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UNDP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경력을 개발해 나갔나요?

코이카 해외봉사단 이후 영국 개발학연구소(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에서 '빈곤과 개발'을 주제로 개발학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당시 코이카에서 경력자에게 학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코이카 ODA 전문가 제도를 통해 DR콩고 코이카 사무소에서 농업농촌개발 분야 전문가로 일하며 사업 개발과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갓 석사를 마치고 온 때라 실무를 잘 몰라 허둥대기도 했지만, 대학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길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현지 대학교 농경제학과 교수팀과 농촌종합개발사업 영향평가를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했어요. 코이카 봉사단 활동을 할 때 파라과이 농업부 농촌지도부와 주로 업무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DR콩고 농업부와 농촌지도 역량 강화 사업을 기획해서 승인을 받기도 했고요. 이후 잠시 NGO에서 에티오피아 근무를 하던 중 당시 신규 프로그램이었던 코이카 다자협력 전문가(KOICA Multilateral Cooperation Officer, KMCO)*에 합격했고, UNDP DR콩고에 파견되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업무를 이어오고 있어요.

Q. DR콩고 주재 국제기구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활동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활동할 당시에는 제가 프랑스어도 서툴고, 함께 있던 다른 나라 기관 사람들도 코이카나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눈썰미도 좋고 한 번 배운 업무는 적응도 빠르고 효율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현장 상황과 문화, 주요 어젠다 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이야 자신이 지나온 각 단계가 경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하루하루 충실하게 다

* **코이카 다자협력 전문가**: 코이카와 국제기구 간의 협력 효과성을 높이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인재들에게 국제기구 개발도상국 사무소에서 최대 2년간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3



4

음 걸음을 내디디며 새로운 프로그램에 도전해야 했다. DR콩고에 파견 직후 초기 5년 동안 그는 현지의 유일한 한국인 전문가였다. 지금은 그를 포함해 두 명의 한국인이 현지 전문가로 근무 중이다.

Q. DR콩고에서 다자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프리카에서 10여 년 일하며 접한 유엔(UN) 기구 국가사무소 내 다자협력은 무척 다양한 형태로 이뤄집니다. 제 경험에 빗대어 설명해 보면, 사업 형태의 경우 아프리카 내 DR콩고와 같은 취약국의 경우 재무 리스크 등으로 인해 UN기구 등이 직접사업수행 권한을 갖고 협력정부 승인 아래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정부 부처가 펀딩을 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펀딩은 UN기구마다 다르게 진행되지만, UNDP는 각국 재원을 펀딩 형태로 모아 전략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사무소에 배분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도 이러한 UN기구에 핵심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콩고분지 열대우림이 있는 DR콩고는 '기후위기'와 '전통적 취약국'이라는 주요 국제 어젠다를 이유로 세계 각국 주요 원조기관들이 모여 있다. 주요 공여국과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고 이행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지인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적지 않다. 현지 정부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신뢰를 쌓는 기본은 역시 '진정성'이다.

Q.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기억에 남는 사업 혹은 활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한 해당 사업 및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당시 DR콩고에서 제2의 코로나 진단센터 건립운영 사업을 진행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한국에서는 진단센터 건립 사업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정부 거버넌스와 조정 역량이 아프리카에서도 최저 수준인 이곳에서는 그야말로 만만치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게다가 DR콩고 정부 입장에서는 UNDP라는 큰 규모의 기관을 통해 사업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더해져 사업 미팅을 잡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코이카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제2의 코로나 진단센터 설립을 5개월 만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Q. 복잡해진 국제질서 가운데, DR콩고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건 도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아예 없거나 접한 해안선이 짧아 실질적 내륙국일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물류비용이 3~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높은 물류비용으로 인해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는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전기나 물, 학교, 병원 시설 등도 중요하지만 도로 인프라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DR콩고의 경우에는 동부지역 반군과의 전쟁, 그리고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정세도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Q.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경제·정치적 배경을 고려할 때 DR콩고에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좀 더 현실적인 대답을 위해 'DR콩고 사업 성공'의 정의에 다르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지표와 성공 기준에서 벗어나 '실현할 수 있는 부분'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자 전반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국가 전체 거버넌스 안에서 중장기적으로 섹터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개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지역 중심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 이행에서는 프랑스어권과 지역 전문성 등을 고려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지 정부와 현지 NGO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국제 NGO 등이 선도하는 형태의 사업 이행 구조가 성패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전문성과 언어, 지역 안전 등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지만, 분야 전문성과 사업 조정 역량 측면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기여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까?

지원 사업의 가장 끝단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점에 관심이 있고,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억, 수십조 단위의 큰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보지만, 정작 혜택이 돌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곳에서 일하며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 국제기구 국가사무소 대표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사무소의 대표라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원하는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준우 소장은 현지 정부와 대화할 때 '동행(Accompagnement)'이라는 단어를 자주 주고받는다고 말한다. 때로 이 말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에둘러 전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덧 아프리카에서 10여 년, 국제기구에서 10여 년을 보낸 그는 '동행'의 의미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기를 희망한다. 재원 투자를 넘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수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협력의 생태계가 탄탄하게 갖춰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그는 ODA 전문가를 지망하는 청년들을 향한 한마디도 잊지 않았다. 그는 시작 단계에서는 다양하게 경험을 쌓고, 이후로 영역을 좁혀 나가며 전문성을 키울 것을 당부했다. 그 역시 현장에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1 콩고민주공화국 코로나 제2진단센터 개소식
2 UNDP 콩고민주공화국 국가사무소 현장사무소 전경
3 산림 기후변화대응(REDD+) 사업지
4 좋지 못한 도로 상황으로 흙길에 빠진 UN 컨테이너 차량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 인터뷰

“한국은 개발협력 분야의 최고 파트너”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이 지난 3월 6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코이카 본부를 방문했다.

유엔인구기금은 ‘모든 임신이 환영받고, 모든 출산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며, 모든 청소년의 잠재력이 실현되는 세계를 위한(to deliver a world where every pregnancy is wanted, every childbirth is safe and every young person’s potential is fulfilled)’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의 대표적인 성·재생산 건강 기구이다.

유엔인구기금은 1974년부터 한국과 협력 중이며, 1970년대 한국의 인구정책, 인구계획, 가족계획, 인구조사 등을 지원해왔다.

코이카와 유엔인구기금은 이날 향후 3년 동안 아프리카, 중동 등 분쟁취약 지역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생존자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카넴 사무총장은 “코이카와 향후 3년 동안 아프리카, 중동 등 분쟁취약 지역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여성 및 소녀들의 성·재생산 건강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프로젝트를 3,270만 달러(약 425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소말리아, 남수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 6개국에서 약 70만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Q. 한국 방문은 몇 번째인가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사무총장 자리에 오른 2017년 국제 인구 콘퍼런스와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하기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했고, 2019년에는 유엔인구기금 서울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했습니다.

Q. 현재의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유엔인구기금 사무총장으로서 한국의 인구학적 변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20세기 초반 서양의 의학과 보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사망률이 급감하고 평균 기대수명은 급증했습니다. 출산율이 가장 눈에 띕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인구학적인 문제를 악화시키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내외부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와 그로부터 파생된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인구학적인 위기 역시 극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유엔인구기금은 ‘모든 임신이 환영받고, 모든 출산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며, 모든 청소년의 잠재력이 실현되는 세계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의 대표적인 성·재생산 건강 기구이다.

Q. 코이카와 유엔인구기금 간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코이카와 유엔인구기금은 2007년부터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모성보건 및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부문에서 진행해온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분쟁 및 취약국 지원 프로그램’은 에이즈를 비롯한 성질환 진단·치료, 피임법 교육을 통한 성·재생산 보건 서비스 확대와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이 목표로,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을 구하고 인도주의적 가치를 위해 여성과 소녀들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Q. 지원국은 어디인가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소말리아, 남수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 6개국입니다. 우선 아프리카 지역의 4개국에 걸쳐 총 65만 3,627명이 344개의 보건시설을 통해 성·재생산 보건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4만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14곳의 보건시설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그간 코이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말씀해주세요.

코트디부아르에서 진행한 누관질환 치료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할례를 경험한 여성은 난산 시 방광이나 장에 구멍(누관)이 생기면서 대소변이 질로 흘러내리는 '산과적 누공'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7년 코이카와 누관질환 치료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27건(2024년 기준)의 다양한 사업을 함께했습니다. 현재 계속사업도 총 20건으로 1억 1,600만 달러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신규 분쟁취약국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27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빈곤국이나 개도국에서 일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분쟁지역에서 다자협력 사업 진행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지난 35년간 일하면서 느낀 점은 현지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회성으로 접근하거나 문서상으로만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에 직접 관심을 보이고 필요할 때 개입한다는 점이 코이카의 상당한 강점입니다. 빈곤국이나 개도국에서 일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매우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가 필요하며, 코이카는 그런 면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한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최근 칠레의 출산율 하락을 조명한 한 매체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개인적 부담을 덜어줘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부담을 느끼는 요인을 조사하면 경제적 비용과 좋은 부모가 돼야 한다는 감정적 소모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은 경제적 활동이 왕성한 시기와 가임기가 겹치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에게 최적의 결정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다.

Q.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여성의 워라밸이 적절하게 작용해야 하며 남성에게도 출산 휴가를 부여하고 주말에 자녀들과 놀아줄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결혼을 하면 집안일이라는 일종의 '세컨드 잡'이 생기는데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공정해야 합니다.

Q. 구체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유엔인구기금에서 민간기업과 함께 저출산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내 수유실을 만들고, 임신 기간에 정기검진을 할 때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제도 등을 실행했더니 결과적으로 회사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고 인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엔인구기금의 'The Coalition for Reproductive Justice in Business'를 참고해 보면 좋습니다.

(링크: https://www.unfpa.org/updates/coalition-reproductive-justice-business-mobilizing-private-sector-womens-health-and-rights)

Q.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7개 중 가장 핵심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한 첫 국제인구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에서 채택된 'ICPD 행동계획(ICPD Programme of Action)'은 기존의 수치화된 인구 목표를 지양하고, 모든 부부 및 개인이 자녀의 수, 자녀를 가질 시기 등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인정하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유엔인구기금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말자(Leave No One Behind)'라는 메시지를 내세웠으며 거기에는 임산부와 어린이가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의 출산율, 자기 결정권 등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1

2024년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사업 성과공유회

시민사회와 함께 더 큰 세상을 그립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위기 속에서도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사업은 꾸준히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에만 475억 원을 들여 80개 국내 파트너 기관과 31개국에서 122개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수혜자는 16만 명에 이르렀다.

시민사회협력사업 30년, 사업 예산 1,000배 이상 증가

올해로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사업이 30년을 맞았다. 지난 30년간 코이카는 시민사회와 함께 개발도상국 주민에게 한층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뛰어왔다.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사업은 정부와 비영리 시민사회단체(CSO), 대학, 연구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활동하는 대표적 민관 협력 사업이다. 민간의 전문성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력 대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국민참여형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 간 사업을 보완하는 현지 주민친화형 개발협력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전략형, 성장형,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등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주도의 풀뿌리 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코이카의 역할은 단순한 시민단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발협력연대(DAK) 정책 협력 사업, 성과관리 체계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사업의 질적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다.



2

사업은 지난 30년간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
예산 규모로 보면 사업이 처음 시작된 1995년 4,600만 원에서 2023년 475억 원, 올해는 570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업은 지난 30년간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 예산 규모로 보면 사업이 처음 시작된 1995년 4,600만 원에서 2023년 475억 원, 올해는 570억 원으로 증가했다. 30년 사이 예산 규모가 무려 1,000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2024 시민사회협력사업 성과공유회

코이카가 지난 3월 27일 '2024년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생계 넘어 소득으로: 경제적 자립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성과공유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학,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30년 동안 진행했던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2023년 코이카가 시민사회 파트너와 함께 개발도상국에서 추진한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사업의 성과를 되짚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풀뿌리 공동체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자립을 실현한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사업의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소득증대 사업·생계 역량 강화로 수혜국 삶 바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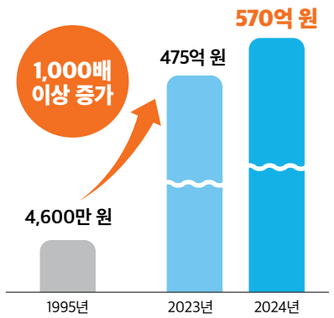
성과 발표에서는 ①말라위 중부지역에서 6년간 소농가의 생산, 저장, 판매 구조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사업 ②베트남 빈롱성에서 11년간 영세상인 소액대출과 지역정부 역량 강화를 통해 빈곤가구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사업 ③르완다에서 3년간 극빈곤 여성 가구의 생활 수준을 포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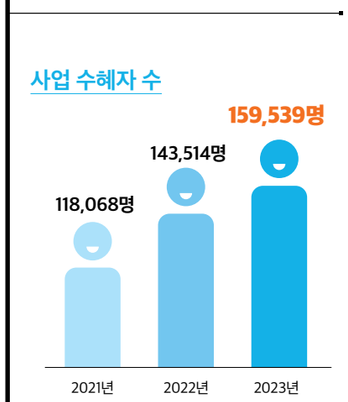
3

시민사회협력사업 지원 규모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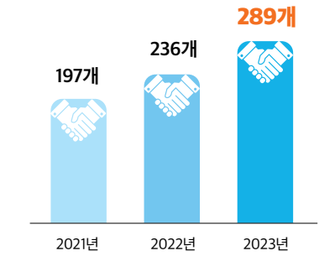
지원 금액



사업 수혜자 수



현지 파트너 수





4

개선한 월드비전과 더멋진세상의 사업 등이 자세히 소개됐다.

①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 말라위

- 말라위 보전농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소득증대 사업(1단계 2018~2020년 17억 6.300만 원)
- 말라위 중부지역 지속가능 농업 및 조합 가치사슬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2단계 2021~2023년 19억 2,700만 원)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은 말라위 중부지역에서 6년간 소농가의 생산, 저장, 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수행했다. 영농 투입물 제공, 지속가능 농업 교육, 농산물 품질관리체계 구축, 곡물 유통체계 구축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사업 참여 농가의 단위 면적당 옥수수 생산량을 말라위 국가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였고, 농가의 농업 순수익도 평균 149% 증가했다. 이밖에 1,858명 수혜자들의 삶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② 열매나눔인터내셔널 - 베트남

- 베트남 빈롱성 빈곤 가구 소득증대 및 지역정부 역량 강화 사업(1~4단계 2011~2021년 21억 9,500만 원)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은 베트남 빈롱성에서 빈곤 가구의 소득증대와 지역정부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자체 사업을 포함해 2011년부터 11년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지원, 기초경제 교육 실시, 재래시장 인프라 유지보수 등을 추진했으며, 마을 인민위원회 공무원 중심의 사업관리팀을 구성해 성공적으로 현장 중심 사업을 수행했다. 사업 결과 총 5,847회의 소액대출을 지원했으며, 수혜자 63.4%(2017~2021년 모니터링 결과)의 소득이 증가했다.

③ 월드비전·더멋진세상 - 르완다

- 르완다 UPG 모델을 활용한 여성 가장 가구 극빈 상태 개선 사업 (2021~2023년 26억 9,500만 원)

월드비전과 더멋진세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르완다에서 UPG 모델* 사업을 통해 600여 개 극빈곤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 지원, 생계 역량 강화, 금융 문해력 교육 등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 결과 참여 가구의 69%가 극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기초생활 유지와 더불어 사회적 참여도 확대됐다. 금융 서비스 접근성도 개선돼 여성 가장 가구의 생활수준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파트너십으로 개발도상국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할 것"

이날 신재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정책센터장을 좌장으로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이성범 원더스 대표 외 발표자 3명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전략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발표자와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서로 사업 계획 등을 공유하며 실무적 협력 관계를 논의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코이카는 사업 행정 효율화와 안전한 해외 체재 및 안정적인 사업 현장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하고, 5월에 개최한 2025년 신규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사업 공모설명회 계획을 알리며 갈무리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우리 시민사회는 개도국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력국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사회의 다층적 위기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했다.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이카와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견고한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도상국 주민들이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 UPG(Ultra Poor Graduation) 모델: 극빈 상태 개선 모델. 사회적 보호, 생계 활동, 사회적 역량 강화, 금융 수용 등을 통해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현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 접근 방식

1 2024년 시민사회협력사업 성과공유회 기념 사진
2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3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사업 수혜자(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제공)
4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사업 수혜자(열매나눔인터내셔널 제공)
5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사업 수혜자(월드비전· 더멋진세상 제공)



5

2023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사업 주제별 사업 성과

교육(고등교육 포함)

32건 사업 수
85.6억 원 지원 예산
18,185명 수혜자

농림수산

18건 사업 수
67.1억 원 지원 예산
10,296명 수혜자

보건

37건 사업 수
156.3억 원 지원 예산
113,905명 수혜자

다분야(사회연대경제, 인권, 젠더, 기후)

35건 사업 수
114.5억 원 지원 예산
17,153명 수혜자


1

송영준 코이카 캄보디아사무소 부소장

역사의 흔적을 되살리는 자부심

※ 이 콘텐츠는 코이카와 월간지 <샘터>의 협업으로 제작됐으며, <샘터> 7월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8월 코이카 캄보디아사무소에 부임했다. 대부분의 하늘길이 막혔지만 다행히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과 인천 구간은 계속 열려 있어 입국에 큰 문제는 없었다. 입사 후 본부 부서에서만 근무하다 처음 나가는 해외 근무라 설렘과 걱정이 뒤섞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보고서로만 만났던 수혜자, 여러 파트너들을 개발협력의 최전방에서 실제로 만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생겼다.

캄보디아는 한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0달러 미만인 최빈국에 해당했던 국가로 2021년 최빈국 해제 기준을 충족했으나 아직 최종 졸업심사 전이라 여전히 최빈국으로 분류돼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오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 캄보디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3개 분야는 교육, 보건, 농촌개발이다. 캄보디아사무소에서는 소장 아래 4명의 부소장이 각각 사업을 맡아 진행한다. 다른 부소장들이 위의 3가지 분야 중 한 가지씩을 맡고 나는 공공행정 및 문화 분야를 담당하게 됐다. 공공행정 분야는 협력국의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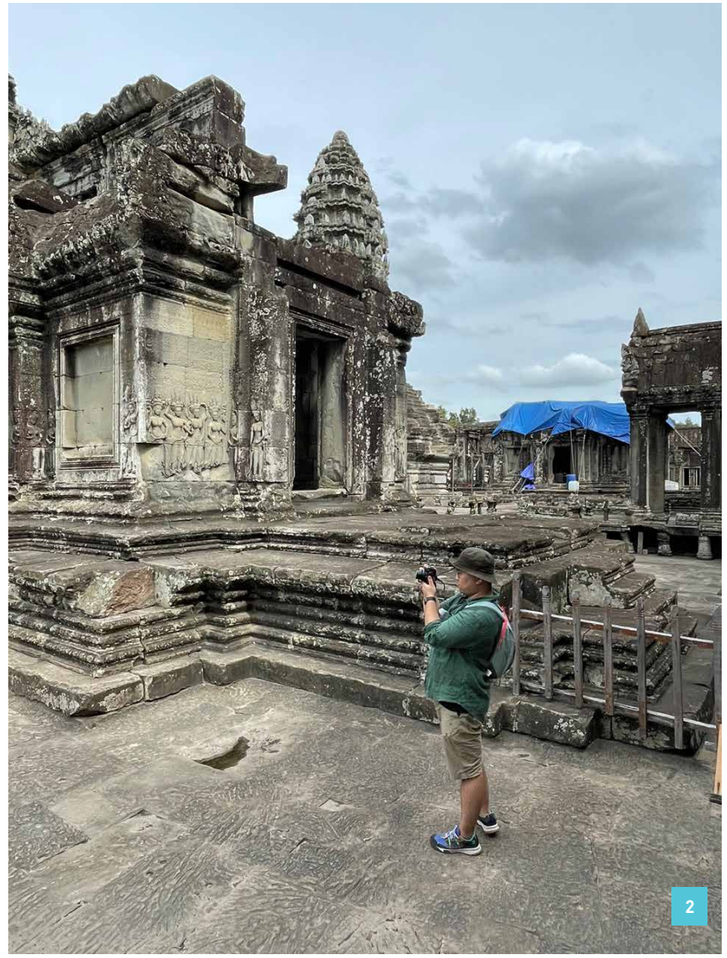
앙코르 유적은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번성했던 크메르 제국의 수도로, 제국이 쇠락하며 도시 전체가 버려졌다가 19세기 프랑스의 한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됐다.

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법제도 개선, 행정제도 효율화 사업 등 코이카에서 전통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라 익숙한 편인데 문화 분야는 생소하기만 했다.

문화 사업 중 하나는 바로 유적 복원이다. 캄보디아는 영화 〈툼레이더〉의 배경이기도 한 앙코르 유적이 유명한데, 우리 사무소는 앙코르 유적의 보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덕에 나는 다른 사람들은 평생 한 번 가볼까 말까 한 앙코르 유적을 열 번 넘게 방문했다.

앙코르 유적은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번성했던 크메르 제국의 수도로, 제국이 쇠락하며 도시 전체가 버려졌다가 19세기 프랑스의 한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그 가치가 인정돼 1992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불법 발굴, 고고학 유적 약탈, 전쟁 등으로 파괴될 위기에 봉착해 유네스코에서 특별 관리하는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국제 복원팀들이 투입돼 문화재 복원을 실시했다. 이런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 2004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선 벗어났지만 여전히 국제팀이 현장에서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코이카는 2015년부터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앙코르 톰 내에 위치한 프레아피투 사원과 코끼리테라스의 보존 및 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길이 300m가 넘는 긴 벽면에 코끼리를 타고 농사를 짓는 모습, 코끼리를 훈련하는 모습 등이 새겨진 코끼리테라스는 오랜 세월 내부에 쌓여 있던 흙이 물


2

을 머금고 팽창하며 벽면을 밀어내고 있어 긴급 보수와 복원 작업이 시급했다.

개발협력 분야에 몸담으면 학교를 지어주며 학생들을 만나고, 병원을 지어주며 환자들을 만나고, 농촌개발 사업을 펼치며 농부들을 만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학생도, 환자도, 농부도 아닌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전 세계 관광객들을 더 많이 만났다. 특히 한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을 마주칠 때 어깨너머로 "코이카에서 앙코르 유적 복원을 하고 있다"라는 가이드의 설명이 들리면 괜스레 우쭐해지곤 했다.



송영준 코이카 캄보디아사무소 부소장

이력사항 2017년 코이카에 입사해 혁신사업실과 경영성과팀을 거쳐 2021년부터는 코이카 캄보디아사무소에서 현재까지 앙코르 유적 복원 사업, 박물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문화 복원 사업에 힘쓰고 있다.



3

코이카에서는 앙코르 유적 복원 사업뿐만 아니라 프놈펜에 위치한 뚜올슬랭 박물관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뚜올슬랭 박물관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급진적인 공산주의 무장단체였던 크메르 루즈 정권이 국민을 감금, 폭행 및 고문해 거짓 자백을 받아 처형한 수용소였다. 이러한 비극의 근현대사를 기록한 뚜올슬랭 박물관 내 기록물을 보존 처리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이다. 수용소 시절 수감자들의 사진, 자백서와 수감자, 교도관, 보안요원 신상기록들은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으며, 현재는 뚜올슬랭 박물관, 킬링필드 등 캄보디아의 어두운 근대사와 관련한 유산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신청한 상태다.



4

코이카가 문화 복원 사업을 펼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나는 때때로 관광 가이드 혹은 전문 유튜버처럼 캄보디아 문화 지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사업 시찰을 위해 국회나 국무조정실 혹은 기획재정부 등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출장단들이 방문하면 직접 사업을 소개하기도 하고, 더 많은 한국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사무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영상 촬영 및 편집을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문화 분야가 생소했지만 이젠 캄보디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 이곳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됐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이쯤 되면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캄보디아 가이드로 제2의 인생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재미난 상상도 해본다.

1 캄보디아 유적 복원 관계부처 직원들과 함께
2 앙코르 유적 촬영 모습
3 캄보디아 전통춤 압사라댄스
4 앙코르 유적 복원 작업

한눈에 보는 코이카 최신 이슈

KOICA NEWS 모아보기

1월 January



'더 나은 2024년 돼야' 코이카 시무식 개최

코이카가 지난 1월 2일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하고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으로의 도약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코이카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성남 코이카 본부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2024년은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으로 도약하는 실질적 성과를 보여야 하는 해라면서 "임직원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사업과 경영의 지속적인 혁신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또 코이카가 역사상 최초로 예산 2조원 시대를 맞은 만큼 임직원이 이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많은 헌신과 분발을 당부했다.

더불어 장 이사장은 ▲미래경영 ▲소통경영 ▲효율경영 등 3대 경영방침을 기반으로 ▲사업 발굴·이행 체계 개편 ▲3대 격차(개발·디지털·기후 격차)의 해소 ▲개발협력 생태계 선도 등 올해 우선 이행할 과제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ODA 사업에 청년 3만 명 일 경험 기회 제공

코이카가 2027년까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청년 일 경험 기회 3만 개를 창출한다. 코이카는 ODA 사업에서 해외봉사단, 해외사무소 청년인턴, 코디네이터 등 청년 일 경험 기회 확대와 역량 있는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를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1월 3일 밝혔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정부의 청년정책에 발맞춰 더 많은 청년들에게 ODA 사업을 통해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전 세계를 무대로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코이카는 코이카의 대표 해외 청년 참여 프로그램인 해외봉사단, 해외사무소 청년인턴(영프로페셔널) 및 코디네이터 참가자를 대상으로 직무 경험을 강화하는 한편, 참여자 수도 2027년까지 누적 3만 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수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동시 획득

코이카가 국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 인증인 'ISO/IEC 27001(정보보안 경영시스템)'과 'ISO/IEC 27701(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2종 인증을 동시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코이카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위험 관리를 통한 안정적 경영 기반을 확보했으며, 국제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ISO/IEC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국제 정보보안 경영시스템 표준으로, ▲조직 통제 ▲인적 통제 ▲물리적 통제 ▲기술적 통제 등 총 4개 통제 영역에 걸쳐 93개의 인증 기준에 대해 이행 수준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공인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는다. ISO/IEC 27701은 ISO27001의 확장 영역으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EU GDPR)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조건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의무 ▲개인정보 공유, 전송 및 공개 등 8개 분야 49개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청년중기봉사단 파견 인원 2배 이상 확대

청년중기봉사단의 파견 인원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된다. 코이카가 지난 1월 26일 '2024~2026년 코이카-청년중기봉사단 파견 사업' 수행기관 입찰 및 공모를 진행했다. 청년중기봉사단은 2014년 발족한 만 19~34세 이하 청년 대상의 해외봉사 프로그램이다. 주로 ESG 주제에 맞춰 봉사단원을 선발해 5개월간 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코이카는 정부의 청년정책에 발맞춰 더 많은 청년들에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중기봉사단 활동 주제를 기존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디지털, 장애·인권을 추가한 5가지로 다양화했다. 파견 인원 수도 작년 151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년중기봉사단 사업의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올해 5~7월 봉사단원을 모집하고, 8~9월 봉사단 교육 및 파견을 진행해야 한다.

2월 February



‘사업 효율성 UP’ 질병관리청과 협력 강화

코이카가 지난 2월 2일 질병관리청과 양해각서(MOU)를 개정 체결하고, 보건 분야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효율적 이행 및 글로벌 보건 안보의 향상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코이카와 질병관리청은 2018년에 업무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했으며, 양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사업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하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의 개정을 통해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ODA 사업에 대한 공동 기획 및 상호 협력을 시행하고, 특히 팬데믹 대비 해외 감염병 발생, 보건 현안 등 동향 관련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개정된 양해각서에는 ▲개발도상국 대상 감염병 분야 ODA에 대한 사업 공동 기획 및 발굴 상호 협력 ▲보건 분야 ODA 및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활동과 관련한 상호 협력 및 기술자문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파트너’ 대한상의와 손 더 꽉 잡는다

코이카가 대한상공회의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수행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에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 2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무협약서 체결식을 갖고 개발도상국 대상 프로젝트 사업,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WFK) 파견 등 무상 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시행 및 평가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 대상 개발협력을 위한 공동 또는 위탁 연구와 국내외 개발협력 네트워크 및 ODA 관련 정보 공유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ODA 사업의 90%를 코이카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ODA 분야 협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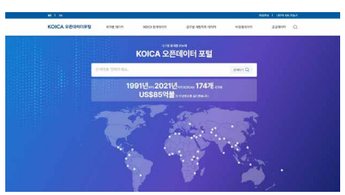
‘젊은 국가’ 캄보디아에 ICT 인재 키운다

코이카가 캄보디아의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섰다. 코이카는 지난해 12월 14일 캄보디아 4개 주의 4개 지역교사양성센터와 20개 ICT 선도학교에 48개의 ICT 실습실을 구축하는 개소식을 가졌다.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의 60%가 만 34세 이하인 ‘젊은 국가’이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정한 의무교육(1~9학년)을 이수한 학생의 비율은 52.9%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이카는 캄보디아에서 사회변화에 발맞춘 21세기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700만 달러 규모로 ‘캄보디아 중학교 ICT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개소식을 개최한 캄보디아 4개 주의 지역교사양성센터와 ICT 선도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교사 역량 강화가 사업의 주된 내용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낫 분로언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차관은 “교육과 ICT 양측에서 독보적인 한국이 캄보디아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협력해주니 든든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인도에서 손잡은 코이카와 USAID

코이카 인도 주재관이 지난 2월 20일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인도 사무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인 인도에서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인 인도에서 최초로 한·미 간 공동 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인도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재난 및 기후변화 복원력 강화 ▲디지털 문해율 제고 ▲한·미·인 삼각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와 5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 국가이다. 이번 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한·미·인 삼각협력이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년 연속’ 공공데이터 운영 평가 최고 등급 기관

코이카가 지난 2월 29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의 편리한 활용을 위한 각급 기관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696개의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이다. 코이카는 이번 평가에서 총점 89.4점으로 평가 대상 기관 평균 63.1점 대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개발협력 분야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의 체계적 관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신규 데이터 발굴 및 개방 ▲보유한 데이터 품질 향상 노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3년 코이카 오픈데이터 포털(www.oda.go.kr) 고도화를 통해 개발협력 분야 데이터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 점이 우수 사례로 인정됐다.

3월 March



코이카-베트남, ODA 협력 방안 논의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이 베트남 정부 고위인사들과 ODA(공적개발원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 이사장은 지난 3월 17~19일(현지 시각) 베트남을 공식 방문해 베트남 부총리, 과학기술부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과 만나 베트남 산업인력 양성, R&D 협력, 혁신적 농촌공동체 개발 등 향후 베트남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새로운 ODA 프로그램 구상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코이카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가칭)은 코이카가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기획한 신규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러 개도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캄보디아 기업가들의 꿈을 지원합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이 지난 3월 14일(현지 시각) 캄보디아 국립창업보육센터(National Incubation Center of Cambodia, NICC) 개소식에 참석했다. NICC는 코이카의 ‘캄보디아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된 창업 지원 공간이다. 코이카는 NICC를 중심으로 한 긴밀한 산학연계를 통해 실력 있는 청년 기업가를 배출하고, 이 기업가들이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코이카는 캄보디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사업 공간 지원 ▲초기 투자금(시드머니) 제공 ▲경영 및 디지털 기술 지도 ▲한-캄 대학 창업 교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NICC는 캄보디아 미래 세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인큐베이터’로, 코이카는 이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고 캄보디아의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여정에 계속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 상황’ 코이카-NGO 더 똘똘 뭉친다

코이카가 세계 긴급재난 상황에서 국내 NGO(비정부기구)들과 더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됐다. 코이카는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시의적절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2022년부터 국내 NGO와 민관 협력으로 긴급재난 대응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코이카와 국내 5개 NGO(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희망친구 기아대책,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초록우산어린이재단)는 약정 체결식을 열고, 올해부터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코이카가 NGO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그전까지 코이카는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참여했다. 이날 약정 체결식에서 손정미 코이카 글로벌연대·파트너십본부 이사는 “올해 첫 시범 도입되는 민관 컨소시엄 방식의 협업은 추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민관 협력 사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발협력 참여전략 설명회 개최

코이카가 지난 3월 12일 ‘2024년 개발협력 참여전략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은 개발협력 참여전략 설명회는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잠재 파트너를 대상으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 방법과 전략을 안내하고,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유용한 ODA 참여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제공하는 행사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ODA 시장 진출 확대’라는 주제로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코이카는 4,500억 원 규모의 2024년 발주 계획을 중심으로 조달 참여 절차 안내, 기업 협력 사업 참여 방안 등 글로벌 ODA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유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코이카는 설명회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외 ODA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에티오피아 기술 혁신 이끌 ‘이노비즈-K’ 오픈

에티오피아의 미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창업보육센터 ‘이노비즈-K(Innobiz-K)’가 지난 3월 22일(현지 시각) 문을 열었다. 한국 정부와 코이카의 지원으로 건립된 이노비즈-K는 에티오피아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창업 교육, 우수기업 창업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이다. 코이카는 2025년까지 중저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에티오피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기술 혁신 기반의 기업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노비즈-K 센터 건립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소식을 위해 한국에서 현지를 찾은 김동호 코이카 이사는 “이노비즈-K는 한국의 오랜 우방인 에티오피아의 경제 발전을 위한 코이카의 헌신을 상징하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제조업·혁신 분야 창업 진출을 적극 지원해 에티오피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4월 April



우리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하는 MOU 체결

코이카가 지난 4월 1일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간 상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진출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견인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사업(TIPS)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하는 코이카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DIP) 간의 연계 사업 발굴 ▲개발도상국 문제를 해결하는 예비창업가와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코이카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의 고도화 및 활성화 ▲홍보 및 기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식에서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손잡고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코이카가 개도국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국에너지공단과 손잡는다. 코이카는 지난 4월 9일 한국에너지공단과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유기적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ODA 사업 협력 ▲양 기관의 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유기적 연계 ▲양 기관 간 전문 분야 정보 및 인적 교류 등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개도국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정책 수립, 온실가스 검·인증 등을 지원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개도국의 에너지 접근성 향상, 에너지 빈곤 해소 등에 기여하기로 했다. 코이카는 '코이카 기후행동 중기전략(2021~2025)'을 수립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ODA 사업 발굴을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KOICA
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 Partnership

중기부 동반성장 평가서 '최우수' 등급 받아

코이카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코이카는 ▲동반성장 전략 수립 및 체계 ▲공정거래 문화 조성 및 확산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 총 99.08점으로, 134개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신한은행과 협력해 총 5년간 7.9억 원의 안정적인 상생협력 기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특성상 달성하기 어려운 기금 출연을 한 부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유도하고자 2007년부터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역대 최대 규모로 다자협력전문가(KMCO)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선발하는 코이카가 지난 4월 30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해당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4년 다자협력전문가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파견 인원은 각각 51명, 29명으로 총 8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다자협력전문가는 국제개발협력에 열의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코이카와 협약을 맺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은 유엔(UN) 산하기관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며 국제기구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제도이다. 설명회는 '코이카와 함께 글로벌 진출(Be Global with KOICA)'이라는 주제로 1·2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 '코이카 국제기구 경력사다리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돕는 경력사다리 제도와 프로그램별 지원 자격, 모집 분야, 선발 절차 및 계획 등을 안내했다.

5월 May



중미 3개국 건조회랑 지역에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

코이카가 코스타리카와 손잡고 중미 '건조회랑' 지역의 시설원예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태평양 연안 국가에 길이 약 1,000㎞에 걸쳐있는 건조회랑은 연평균 강수량이 500㎜도 되지 않아 매우 건조한 지역이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작황이 악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식량난과 빈곤을 겪고 있다. 각국 정부는 건조기후에 강한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원예작물에 대한 근본적인 기술 개발은 미비한 상태다. 이에 코이카가 건조회랑 지역의 시설원예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코스타리카와 손잡고 건조회랑 지역에 속하는 중미 3개국의 시설원예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1일 엘살바도르의 농림축산기술센터(오시칼라 지부)에 시설원예 인프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3개국에 걸쳐 총 3,728㎡ 규모로 설치한 시설원예 인프라에서는 3개국이 각각 선정한 우선순위 작물들이 재배될 예정이다. 또 원예농가를 위한 기술 검증, 견학 및 실습, 신기술 정보 제공의 장소로도 활용된다.



8개 국제기구와 협력, 분쟁 및 취약국 지원 박차

코이카가 올해 분쟁 및 취약국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이주기구(IOM),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 8개 국제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이카 분쟁 및 취약국 예산은 지난해 335억 원에서 올해 1,233억 원 규모로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코이카는 8개 국제기구가 가진 비교우위와 경험을 활용, 20여 개의 분쟁 및 취약국을 지원하는 8개 신규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3년간 2,436억 원을 지원한다. 신규 프로그램은 단일국가가 아닌 지역(Regional Project)을 대상으로 10년 단위의 장기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초국경적 위기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또한 국내 NGO 및 학계에서의 사업 참여, 청년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 경로를 마련했다.



한·미, 글로벌 보건안보 위해 다시 함께 달린다

코이카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5월 17일 가나 수도 아크라에 위치한 캠핀스키 호텔에서 '가나 전역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이행을 통한 보건안보 역량 강화 사업'의 업무협조약정(MOU) 교환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황열, 콜레라와 같은 공중보건 위험 요소와 사건의 예방·탐지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1,085만 달러(약 140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코이카는 이번 사업에 앞서 미국 CDC와 협력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가나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강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2차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나 전역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이행을 통한 보건안보 역량 강화 사업'은 기존 1차 사업의 성과를 가나 국가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ODA에 인공지능 도입하는 코이카

ODA(공적개발원조) 분야에도 인공지능(AI)이 도입된다. 코이카가 챗봇 등을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는 등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 영역의 AI 도입을 선도하고 있다.
코이카는 올해 초 AI 도입을 통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코이카 인공지능 도입 기본계획(2024~2026)'을 수립하고, 관련 역량을 전사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회의 진행, 해외 원조 사업의 추진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ODA 관련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해 업무를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코이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개선을 위해 초소형 애자일(Agile·민첩한) 개발 제도를 도입해 단위 업무별 절차 효율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 차세대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연계성 강화 등 업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제도 이어갈 예정이다.

6월 June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촌 이양식 개최

코이카가 튀르키예 하타이주(州) 안타키야에서 임시 거주촌 '한국-튀르키예 우정마을' 이양식을 개최했다. 한국-튀르키예 우정마을은 2023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와 코이카, 민간 단체가 협력해 조성했다.
약 4만㎡ 규모에 500개의 컨테이너 하우스로 구성되었으며 작년 8월부터 이재민 입주를 시작해 현재까지 입주자를 위한 경제적·사회적 지원 프로그램(비상물자 지원, 아동보호 및 심리사회적 지원, 일자리 창출, 식수위생, 젠더기반폭력 예방 지원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양식에서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한국과 튀르키예의 우정을 나타내는 도로명이 적힌 대형 사인보드를 튀르키예 측에 전달했다. 6월부로 '튀르키예 임시 정착촌 조성 및 이재민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튀르키예 현지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한국-튀르키예 우정마을의 관리와 지원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키르기스스탄 공공기관 전기차 전환 신규 사업 추진 합의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이 키르기스스탄 공식 방문 중 다니야르 아만겔디예브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 장관을 만나 올해 신규 사업인 '코이카 키르기스스탄 그린모빌리티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전기차 전환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 사업은 키르기스스탄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그린모빌리티'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1,100만 달러(약 150억 원)를 투입한다.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코이카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및 추이주(州) 일부 지역의 공공기관 및 우체국에 전기차 130대와 전기차 충전기 134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실 구축과 그린모빌리티 공공 부문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 초청 연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18개국 정상급 인사와 양자회담 개최

코이카는 6월 4~5일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탄자니아, 소말리아 등 5개국 정상을 비롯 총 18개국 대표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 아잘리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 포르 에소짐나 냐싱베 토고 대통령, 은초코아네 사무엘 마테카네 레소토 총리를 연이어 만나 양자 현안 및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6월 5일에는 함자 압디 바레 소말리아 총리를 만났다.
장 이사장은 가장 먼저 만난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안전한 식수 공급, 모자보건 증진, 청년 직업기술 및 디지털 교육 확대 등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하산 대통령은 탄자니아의 지속 가능한 청색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의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받길 희망했다. 교통 인프라 개발을 통한 균형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2024년 정부부처·지자체·공공협력 통합 공모설명회 성료

코이카는 '2024년 정부부처·지자체·공공협력 사업 통합 공모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개편된 공모형 정부부처 및 공공협력 국별협력 사업 개편 사항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올해 처음으로 통합 실시된 이번 설명회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부문 잠재 파트너를 대상으로 공모형 사업 참여 방법과 전략을 안내하고, 소그룹 컨설팅을 통해 파트너의 향후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코이카는 올해부터 기존 정부부처 제안 사업, 공공협력 사업으로 별도 운영되던 사업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고유의 사업 영역 및 전문성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코이카, 르완다 ICT 활용 교육 혁명 이끈다

코이카는 르완다 디히로 초·중·고등학교에서 '르완다 교사 및 예비교사 ICT 사업' 종료식과 스마트교실 준공식을 개최했다. 코이카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730만 달러(약 101억 원)를 지원해 르완다 각 군(District)에 2곳 이상씩 총 69개 학교에 거점 ICT 교육 스마트교실을 구축했다. 교실을 리모델링했으며 노트북 컴퓨터, LCD 프로젝터, 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장비 등 교육장비를 지원했다.
또한 ICT 활용 수업 역량 강화 커리큘럼을 개발해 르완다 전체 중등교사의 약 94%(약 3만 명)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초등교사를 대상으로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협력해 ICT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코이카는 7년에 걸친 이번 르완다 사업의 성공 경험을 하나의 모범 사례로 향후 아프리카 전역에 'ICT 교육 혁명'을 이끌 시그니처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KOICA
WORLD FRIENDS KOREA



더 나은 세계를 만납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듭니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이 찾아온 것은 협력국과 함께 번영하는 길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여 협력국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과 협력국 주민이 함께 살아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는 WFK 크리에이터들의 실제 협력국* 현장 활동 사진입니다.
*몽골, 베트남,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록일자 2024년 7월 31일
발간등록번호 홍보 2024-01-185
발행일 2024년 7월 31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전화 1588-0434
팩스 031-740-0260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한국국제협력단 홍보실
제작 (주)조선뉴스프레스
인쇄 타라티피에스

MAGAZINE KOICA
2024 VOL.5

Download **MAGAZINE KOICA**

홍보자료
홍보 2024-01-185